

리아호나

커버 스토리:

소중한 선물, 2쪽

선지자 조셉이 우리에게

남긴 것, 28, 32쪽

물몬경 목표의 주목할

만한 결과, 34쪽

여관 주인의 교훈, 친10쪽





20 06년 12월은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1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선지자가 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몰몬경을 읽거나 다시 읽기를 마친 지 일 년이 되는 달이다. 그 회원들은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자신의 삶과 가정에 “더 큰 주님의 영광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강한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한 더욱 강한 간증”이 더해졌음을 간증한다. “도전에 응함” 34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월호: 보이트 케이 패커, 엘 볼 페라, 라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슨,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후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케리 케이 플먼, 요시히코 기꾸지, 제럴드 앤 렌드, 더블유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레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인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이담 시 율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켓

편집 스태프: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리넬 포터 곤드, 캐리 카스텐, 멜린 레빗, 멜리사 메릴, 셸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처드 엠 톨니, 제니퍼 로즈 크리스티 루쉬, 돈 엘 셀, 재닛 토마스, 폴 맨덴버그, 줄리 워델, 김벌리 웰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칼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코 우온, 브리니 존스 빔,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

통 권: 제 489호, 제 43권, 제 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 02-2232-1441, 교원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버뮤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권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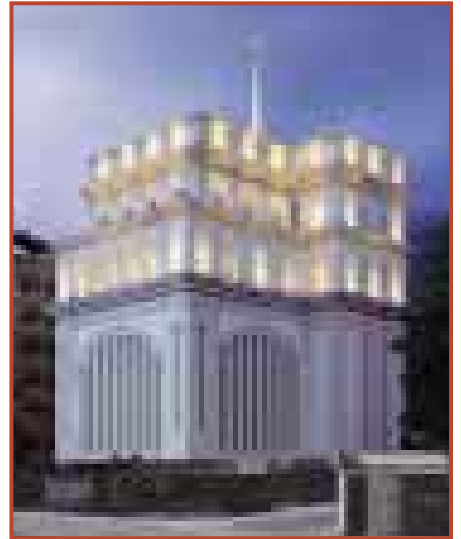
December 2006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소중한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10 노래: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제임즈 이 파우스트, 쟈 핀보로우와 마이클 핀린슨 무디
- 14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1 우리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브라함 메네스 사그레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 34 도전에 응함
- 39 홍콩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와 존 케이 카머 장로
- 42 구약의 교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호르헤 루이스 텔 카스티요 장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내 선물을 다시 나눠 준 사람
텔린 그래스미
크리스마스 타말리 이나 부르시온
가다로운 이웃 다이앤 허버드
팅 빈 내 주머니 제리 엘 조그
- 48 애독자 편지

39 홍콩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밤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14쪽: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몇 가지 물건들을 둔다. 여러분이 물건 하나를 감추는 동안 가족에게 눈을 가리게 한다.

가족들에게 다시 물건들을 보게 하고,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빨리 보고 깨달았는지 알아본다. 기사에서 빨리 보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예를 소리 내어 읽는다.



“회복으로 인해 ...”, 32쪽: 답을 쓸 칸과 함께 “회복으로 인해 ...”라는 단어들을 적은 종이를 나누어 준다.

빈칸을 채울 구절을 찾기 위해 함께 기사를 살펴본다. 가족에게 이번 주 동안 회복으로 인해 얻은 축복을 적어 보라는 과제를 준다. 다음 가정의

밤 시간에 적은 것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세 명을 위한 자리”, 친10쪽: 가족에게 최대한 가까이 붙어 원 안에 서게 한다. 원 안에 성공적으로 서기



복사 금지

결심, 줄리 로저스

1856년 10월 23일,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열한 살짜리 제임스 커크우드는 네 살짜리 동생 조셉을 데리고 와이오밍 주의 록키 리지라 불리는 능선에 올랐다. 그날 밤, 제임스를 포함하여 윌리 손수레 부대 중 열다섯 명이 사망했다. 이 그림은 제 7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에 출품된 작품 중 하나이다.

청소년

- 9 포스터: 구주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 12 기쁨을 나눔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 22 질의응답 “저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성전에서 인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후기 성도 가족이 아니라는 느낌이 때로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26 “너는 기도 안 하니?” 린 에이 미켈슨 장로
- 28 시계 하나, 단추 몇 개 그리고 조셉의 외투 샬리 오데커크
- 32 회복으로 인해 ... 맨디 안드레



28 시계 하나, 단추 몇 개 그리고 조셉의 외투

어린이: 친구들

- 친2 제일회장단이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빛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릭스
- 친6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부지런한 일꾼
- 친8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위한 한 주
- 친10 세 명을 위한 자리 스테이시 에이 힙스
- 친12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 퍼트리셔 알 존즈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약속을 기억함 제이 이 켄슨 장로



친4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호에 숨어 있는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세요.



표지

앞: 하나님의 양을 보라, 윌터 레인,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뒤: 조셉 형제의 일부: 데이비드 린슬리; 사진 촬영: 웬디 시 앤더슨.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모델이 포즈를 취함.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가? 서로 붙잡기, 작은 아이들을 안기 등등의 답을 들 수 있다. 서로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단합된 가족으로 서는 방법들을 토론한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 친12: 가족에게 선지자의 특성들을 제시해 보게 한다. 다른 특성보다 중요한 특성들은 어떤 것들인가? 삶을 즐기고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능력과 그것이 기사에 나온

청소년들에게 미친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읽고 토론한다. 가족으로 하여금 사랑과 용기를 보여 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느낌을 나누도록 권유한다.

“약속을 기억함”, 친14: 교리와 성약 제3편을 펼친다. 제이 이 켄슨 장로의 경험을 읽고 그가 언급한 구절을 공부한다. 성구에서 찾은 약속들에 대해 토론하고 영적인 약속들이 용기를 주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전, 39쪽
가르침, 1, 8, 25쪽	십일조, 42쪽
가정 복음 교육, 8쪽	약속, 친4, 친14쪽
가정의 밤, 1쪽	영적 은사, 14쪽
가족 단합, 22, 친10쪽	예수 그리스도, 9, 10, 친2, 친4, 친8쪽
간증, 26, 34쪽	오락, 친12쪽
겸손, 32쪽	음악, 10, 12쪽
경전 공부, 14, 친14쪽	이혼, 22쪽
기도, 26, 47쪽	일, 친6쪽
모범, 26쪽	자애, 44, 45, 친10쪽
물문경, 34쪽	조셉 스미스, 26, 28, 친12쪽
방문 교육, 25쪽	축복, 21, 25, 32, 34, 47쪽
부모, 2, 22쪽	축복사의 축복, 친14쪽
분별력, 14쪽	크리스마스, 2, 9, 12, 21, 44, 45, 47, 친2, 친4, 친8, 친10쪽
사랑, 2, 44, 45, 친10쪽	평안, 2쪽
상호부조회, 25쪽	회복, 32쪽
선교 사업, 12, 45쪽	
선물, 2, 44, 45쪽	
선지자, 34, 39, 친4, 친6, 친12쪽	
성신, 14쪽	



소중한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데 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 (1873~1970년)은 답장해야 하는 편지, 걸어야 하는 전화, 만나야 하는 사람, 참석해야 하는 모임 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영원한 진리와 기쁨과 행복의 원천에 대해 명상하고 숙고하며 사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주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때 세속적이고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우리 삶의 양식은 영적인 속성을 띠게 되며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상 생활에 영감을 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권고에 따라 때 저는 가족에 대한 생각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경험, 그리고 특별한 날들과 고요한 밤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감미로운 평안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크리스마스 절기는 언제나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고 하나님과의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서 서로 대조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값비싸고 숙련된 솜씨로 포장된 호화로운 선물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라는 선전 문구의 유명 상품 카탈로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언젠가 그러한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거대한 리본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그것과 견줄 만큼 커다란 카드로 포장된

372평방 미터나 되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골프채, 여행객들을 위한 카리브해 유람선 및 탐험가를 위한 스위스 알프스로의 호화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한 젊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녀의 길고 멋진 머리카락을 꾸며 줄 아름다운 장식용 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역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시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계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둘은 그 소중한 선물들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이 늘 그렇듯,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계줄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고, 남편은 이제 없어져 버린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장식할 빗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¹

저희 집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석에는 모조 은 손잡이가 달린 자그만 검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때 먼 친척의 것이었습니다. 70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왜 이 지팡이를 간직해 왔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고통과 아픔이 있은 후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부활에 앞서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덤에서의 그리스도와 아리아, 조셉 브러카, 사진 촬영: 부시스 포토그래피

어린 시절, 와드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세 명의 동방 박사 중 한 명이 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큰 수건을 두르고, 어깨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피아노 의자 덮개를 걸치고, 손에는 검은 지팡이를 들고 저는 대사를 읊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² 우리 세 명의 동방 박사가 고개를 들어 별을 보고, 무대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여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한 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우리가 가져온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을 때 저의 마음속에 일던 느낌들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배반하게 될 악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 크리스마스 지팡이는 여전히 제 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문구로 묘사된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는 잠시 잊기로 합니다. 어머니께 드릴 꽃도, 아버지께 드릴 특별한 넥타이도, 귀여운 인형도, 기적을 올리는 장난감 기차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자전거도, 그리고 책과 비디오도 잠시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선물에 집중해 봅시다. 긴 목록에서 네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출생의 선물
2. 평안의 선물
3. 사랑의 선물
4. 영생의 선물

첫째, 출생의 선물. 이 선물은 전 인류, 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고향을 떠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해의 왕국**이라 불리는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당성과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행동으로 감사함을 나타낼 의무가 있습니다.



기 도하는 습관은 평안에 이르르게 해 줍니다. 단순히 말만 복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쇄업자이셨던 제 아버지는 그분이 인쇄한 글 한 부를 제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편지”였는데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부모로서 내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은 언젠가 내가 너의 첫 자녀를 내려다 볼 때, 내가 너를 위해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고 싶은 소망을 네가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너와 갖는 것일 것 같구나. 누구에게든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나? 사랑하는 아빠가.”

출생의 선물에 대해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것 못지 않으며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갓 떨어져 내려와 지상에서 피어나기 위해 온, 달콤하고 새로운 인류의 꽃”³으로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사항을 돌보시고, 우리가 올 때마다 위로해 주시며, 훗날 우리가 성취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실패하거나 실망하는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경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한3서에는 출생의 선물을 주신 데 대해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⁴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출생의 선물을 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시다.

둘째, 평안의 선물. 우리가 살고 있는 혼잡한 세상은 세상의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소음, 요란한 상업 광고, 그리고 수많은 요구 사항들이 두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입히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질병의 무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해 하는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⁵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의 구절에는 모종의 슬픔과 절망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슬픔 없는 인생이란 없고,
고통 없는 마음도 없는 법.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안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헛되이 구하리.⁶

슬픔의 짐을 지셨으며 절고를 아시는 그분께서는 근심하는 모든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며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⁷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복음과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온 세상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보내 주십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주님의 특별한 종들이 대답해 줍니다. 평안의 왕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겸손의 영으로 용감하게 가르치는 진리를 들으면 좌절은 달아나고 의심은 사라지며 의문도 줄어듭니다. 주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⁸

기도하는 습관은 평안에 이르게 해 줍니다. 단순히 말만 복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릿”이라는 작품에서, 사악한 왕인 클로디우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이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허공에 날아다니고 내 생각은 저 밑에 있으니 생각

없는 말은 결코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구나.”⁹

평안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로 캐나다의 연해주(역주: 캐나다 동부 Nova Scotia,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의 3주)에서 초기 선교사로 봉사한 조셉 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 하늘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그가 일지에 회고하며 적었던 한 가지 경험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그의 신앙을 아름답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 내게 와서 뉴튼 홀 형제님 가족에게 빵이 떨어졌으며 그날 먹을 빵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홀 형제님 집에 보내기 위해 우리의 밀가루를 나누어 자루에 넣었다. 바로 그때 홀 형제님이 왔다.

“홀 형제님, 댁에 밀가루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았다.

“밀렛 형제님, 다 떨어졌습니다.’

“저, 그럼 홀 형제님, 이 자루에 밀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밀가루를 나누어 형제님 댁에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제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빵이 떨어졌다고 말했다더군요.’

“홀 형제님은 눈물을

출 생의 선물은 전 인류, 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고향을 떠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해의 왕국이라 불리는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당성과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점

점 연로해 가며
특히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분들
가운데서 참된 사랑의
표현을 애타게 갈망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으려고 해 보았으나 전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삼나무 숲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조셉 밀렛 형제에게 가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홀 형제님, 주님께서 형제님을 보내셨다면 나중에 밀가루를 갠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밀렛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¹⁰

기도를 통해 홀 형제와 조셉 밀렛 형제는 평안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셋째, 사랑의 선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¹¹

또 다른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¹² 경전 곳곳에서 사랑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경은 자비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¹³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모범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경전은 주님께 관하여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¹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이 몇 소절 나옵니다.

좋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계속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니-

사랑은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¹⁵

점점 연로해 가며 특히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분들 가운데서 참된 사랑의 표현을 애타게 갈망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과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사람들 사이로 꺼져 가는 소망과 사라져 가는 꿈의 차가운 바람이 스쳐갑니다.

“외로운 노년기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불확실한 청소년기에 필요로 했던 것, 즉 소속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원한다는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손길, 단지 의무감에서 하는 형식적인 행위나 단지 어떤 건물 속의 자리뿐만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과 삶 속의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리처드 엘 에반스 장로님(1906~1971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젊음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지원과 적극적이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¹⁶

때로는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 줍니다.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는 한 파키스탄 민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딸과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해지면서 집안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끊임없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접시와 컵을 깨뜨리기도 하고, 칼을 잃어버리거나 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값비싼 접시를 또 깨뜨리자 성이 난 딸은 아들을 시켜 할머니를 위해 나무로 된 접시를 사 오게 했습니다. 손자는 나무 접시를 쓰게 되면 할머니가 창피해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무 접시를 사 오라고 했기 때문에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에서 돌아온 손자의 손에 들린 나무 접시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습니다.

“하나만 사 오라고 했는데 내 말 못 들었니?” 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늙으셨을 때 쓰시라고 하나 더 사 왔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오래 전에 베푼 친절과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데 평생을 기다리곤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우 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기쁨과 지식과 간증과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조지 허버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에게 늘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한 가지 더 간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¹⁷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시인 테니스를 알게 해 준 선생님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힘없이 흘러 쓴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윌리에게,

“네가 보낸 편지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구나.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고, 나는 조그만 방에 홀로 기거하며 내가 먹을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마치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처럼 외롭게 살고 있다. 5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네 편지가 내가 받은 유일한 감사의 편지라는 것을 알면 흥미있어 할 것 같구나. 네 편지는 쓸쓸하고 추운 아침에 왔는데, 수년 간 있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해 주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두 고향을 주셨으니 천국과 감사하는 마음이라.” 라는 소중한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의 선물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다음의 시구가 이 고귀한 선물에 대해 참 잘 설명해 줍니다.

나 밤새 운 적 있지
다른 이의 필요를
나의 좁은 시야로 보지 못했기에.
그러나 지나치게
친절했던 기억에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네.¹⁸

넷째, 영생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참된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 즉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기쁨과 지식과 간증과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상과 글 중에 다음과 같은 신성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¹⁹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신 이 소중한 아들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켓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에 그분이 겪은 고통과 고뇌는 너무나 커서 그분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²⁰라고 간구했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고통과 아픔이 있는 후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부활에 앞서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본 적이 없으며, 이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알았던 적도 없습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또 이제, 보라, ...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²¹

존경하는 선지자 해롤드 비 리 회장님(1899~1973년)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이 생명으로 하는 일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지극히 인내하시며 가르치신 대로 살고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The Gift of the Magi[크리스마스 선물]” 참조.
2. 마태복음 2:2.
3. 제럴드 메이시, *The New Dictionary of Thoughts* (1959년), 39쪽.
4. 요한3서 1:4.
5. 예레미야 8:22.
6. 작자 미상.
7. 요한복음 14:27.
8. 요한계시록 3:20.
9. 제3막 제3장, 97~98행.
10. 조셉 비 워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41쪽.
11. 마태복음 22:36~39.

12. 요한복음 14:21.
13. 모로나이서 7:47 참조.
14. 사도행전 10:38.
15. 리차드 로저스 및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Sixteen Going on Seventeen”.(1950년)
16. *Thoughts ... for One Hundred Days* (1966년), 222쪽.
17. 리차드 엘 에반스, *Richard Evans' Quote Book* (1971년), 238쪽.
18. 리차드 엘 에반스, “The Quality of Kindness”, *Improvement Era*, 1960년 5월호, 340쪽.
19. 요한복음 3:16.
20. 마태복음 26:39.
21. 니파이후서 31:20~21.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몇 가지 물건(사탕, 지갑, 장난감 등)을 가족 앞에 둔다. 가족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지목하게 한 다음, 감정적인 면에서 소중한 것들(가족 사진, 일지, 경전 등)을 보여 준다. 기사의 처음 네 단락을 읽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주는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비교해 본다. 가족에게 좀 더 의미 깊은 선물에 가치를 두고 선물을 하도록 목표를 준다.

2. 몬슨 회장이 언급하시는 네 가지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연출해 보인다. (예를 들어, 선물을 포장하거나 그림을 그린다) 선물을 한 가지씩 가족에게 보여 주고, 기사의 예나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각각을 토론한다. 구주의 관대함에 대해 간증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3. 가족에게 영원히 지속될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선물들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몬슨 회장의 선물을 나열하고 이 선물들이 우리의 영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한다. 가족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선물을 주도록 격려한다.

구주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4:23 참조)

여권과 인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권과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여권과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경건하게 ♩ = 58-66

1. 조용한 그의 목 소 리 그 들 의
(2. 겹 세 마) 네 동 산 에 서 을 리 신

mp

영 혼 을 께 품 었 네 흰 옷 입 고 그 오 션
그 기 도 를 읽 었 네 그 의 사 랑 치 르 신

내 그 들 위 해 고 통 받 으 신 주 그 몸 의
대 가 날 위 해 흘 리 신 피 얼 마 요 고 대 의

rall. *a tempo*

상 처 만 지 고 모 두 중 거 했 네 이 분 이
성 도 와 합 께 나 도 중 거 하 리

더 느리게

가사: 제임즈 이 파우스트, 1920년생, 켄 핀보로우, 1954년생

작곡: 마이클 핀린슨 무디, 1941년생

© 1995 제임즈 이 파우스트, 켄 핀보로우 및 마이클 핀린슨 무디. 이 찬송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제3니파이 11:3~17

누가복음 22:42, 44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a tempo *mf*

구속주인주 그리스도 영혼의치유

자 사랑으로속죄하신자 1. 2. 겿세마

mp

2. 으 로 속 죄 하 신 자

mp 더 느리게

테두리 사진 촬영: 월드 시 앤더슨

기쁨을 나눔

콘수엘로 코네사 레오네

19 63년, 나는 아르헨티나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열 명의 장로들과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나는 멘도사의 작은 지부 세 곳에서 봉사했다.

12월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선교 임지에서 맞이하는 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계획을 세우며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장로들은 말 두 마리가 끄는 사륜마차의 마부를 고용해 우리를 태워 주도록 주선해 두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며 막바지 쇼핑을 하고 있는 길모퉁이에서 내릴 계획이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우리 열두 명은 마차에 올라 마차 양 옆과 뒤로 발을 걸치고 앉았다. 마부는 천천히 마차를 몰았다. 네다섯 블록마다 미리 정해 둔 길모퉁이에 멈춰 섰다. 우리들은 마차에서

내렸고, 앞줄에는 자매들, 뒷줄에는 장로들이 반원 모양으로 둘러섰다. 찬송가를 펼쳐 들고 몇 번이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우리의 목소리로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녀노소를 막론한 사람들이 노래를 듣기 위해 멈춰 섰고, 크리스마스의 영에 젖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축하하고자 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떠올랐다는 듯 놀란 모습이었다.

마차가 다음 장소로 출발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가는 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의 미소 띤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바랐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소개를 받았다.

군중들은 우리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찬송가, 130장)를



다시 불러 달라고 했다. 우리가
노래하자 그들은 그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영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40년도 더 지났지만, 선교사로서의
첫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지금도 나의
가슴은 감사로 넘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또한 참으로 “기쁘”게 세상에 “구주 오”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 ■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주거나 받았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이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적어서 다음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Best Christmas Gift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 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님은 198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영적 은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메시지가 당시 제게 준 영향에 대해 회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때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제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쉬튼 장로님은 그 메시지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속성이나 능력 즉, 다른 은사들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열거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애쉬튼 장로님은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기분 좋게 대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강한 간증을 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22쪽 참조)

언뜻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진가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영적 은사로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몰몬서 1:2) 은사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은사입니다.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영적 은사

우리 모두는 몰몬경의 주요 인물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니파이, 레이맨, 엘마, 노아 왕, 모로나이 및 다른 많은 이들의 삶에 대해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니파이 백성들의 기록을 하나로 엮은 몰몬에 대한 어떤 묘사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몬서 1장 1절부터 5절에 걸쳐 나와 있는, 참으로 고결한 선지자인 몰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

“엠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출 즈음에 내게로 와서, (때에 내가 십 세 가량 되어 ...) 엠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는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즉,

“그러므로 네가 이십사 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여 내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

“또 보라, ...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들에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를 때만이
우리는 천상에서 오는
분별력의 은사 및 그 보호와
인도의 빛을 얻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보 고 깨닫는
것이
빠”르다고

묘사된 몰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며 발전함에 따라 보고 깨닫는 것 또한 빠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하여 보아 온 모든 일을 새길지니라 ...

“이에 나 몰몬은 ... 앰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억하였느니라.” (몰몬서 1:1~5)

이 구절들에 *observe*(역주: 영어 경전에서 *observe*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한국어 경전에서는 “보고 깨닫다”, “보다”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음)라는, 근원이 되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몰몬은 어린 나이에도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아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게 될 성공과 행복은 이 영적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영적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전에서 사용되는 *observ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다”, “바라보다”, 또는 “주목하다”를 뜻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로, *Observe*라는 단어는 교리와 성약에서는 “순종하다” 또는 “지키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약을 지키고 계명을 준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54:6)

그러므로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를 때, 우리는 신속히 보거나 주목하며 순종합니다. 보고 순종한다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게 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몰몬은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 인상적인 모범을 보여 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은사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될 만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던 매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감리하는 스테이크의 축복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부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축복사는 혼자서 움직이거나 옷을 입거나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웠으며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오후 이 선한 스테이크 회장은 축복사를 격려하고 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축복사가 흰 셔츠와 넥타이를 한 양복 차림으로 현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축복사가 혼자서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서 그가 안식일에 옷을 잘 차려 입고 방문객을 맞이할 필요는 없다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축복사는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스테이크 회장을 훈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스테이크 회장은 보고 깨닫는 것이 빨랐습니다. 그는 그 교훈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며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안식일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와 적절한 행실 및 옷차림의 중요성은 스테이크 회장의 임기 동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훈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그의 인생은 물론 다른 많은 이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베드나 자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해 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종종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방문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받습니다. 그러한 영감을 받으면 베드나 자매는 즉시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많은 경우, 폐회 기도의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어떤 청소년과 이야기하거나 어떤 자매를 포옹하거나, 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내가 베드나 자매를 알게 된 이후로 사람들은 늘 그들의 필요 사항을 식별해 내고 반응하는 그녀의 능력에 놀라워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은사는 그녀로 하여금 보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나 자매와 저는 한동안 특별한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했던

한 귀환 선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과 결혼을 고려하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을 무렵 핑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청년들에게 한 귀에는 한 개의 귀걸이만 착용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한동안 이 젊은 청년은 그녀가 나머지 귀걸이들을 빼 버리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년에게 가치있는 정보가 되었고, 그녀가 선지자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청년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청년은 결국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에서 선지자의 권고에 즉각적으로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녀가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지 않다는 것을 빨리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마지막 예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너무 비판적이었거나 생각해 보면 사소한 문제를 근거로 영원토록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어리석거나 광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가 젊은 남성 대신 선지자의 권고에 응답하지 않았던 젊은 여성에 초점을 둔 것이 언짢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능력에 대해, 또한 제가 방금 설명한 예에서 그 청년이 실제로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도록 권유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니파이전서 11장부터 14장에 걸쳐 나오는 주님의 영과 니파이 사이에 있는 상호 작용의 본질에 오랫동안 매료되어 왔습니다. 니파이는 아버지인 리하이가 생명 나무의(니파이전서 8장 참조) 시현에서 보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11장부터 14장에서 성신은 니파이가 아버지의 시현의 본질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주님의 영은 니파이에게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되는 “보라”라는 단어로 열세 번이나 지시하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보도록 여러 번 권고 받았고 그는 보고 깨닫는 것이 빨랐기 때문에 생명 나무(니파이전서 11:8 참조), 구주의 어머니(니파이전서 11:20 참조), 식탁대(니파이전서 11:25 참조),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니파이전서 11:21 참조)을 보았습니다.

저는 니파이가 보았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단지 몇 가지만 묘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들을 더욱 깊이 공부하여 니파이가 거친 배움의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배우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상고하실 때 니파이가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이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없었고 알아야 했던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그가 궁극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속히 간파하고 속히 순종함. 이 간단한 은사는 우리 개개인과 가족, 나아가 참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의미 깊은 영적 은사, 곧 빨리 보고 깨닫는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

우리의 현재와,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영적 은사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다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영적 은사에 선행하는 것으로 그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길을 밝혀 주는 빛입니다.

이는 마치 기적이 있기 전에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고, 물로써의 침례가 불로써의 침례 전에 있는 것과 같으며, 복음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배우기 전에 복음의 기본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과,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깨끗한 마음이 있는 것, 더 높은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을 받기 전에 아론 신권의 의식을 필수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 것은 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한 준비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를 때만이, 또한 보고 순종할 때만이 하늘에서 오는 분별력의 은사, 그리고 그 분별력의 보호와 인도의 빛을 얻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분의 교회 회장 보좌로 봉사하셨던 조지 큐 캐는 회장님(1827~1901년)은 분별력의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은사 중 하나는 영의 분별력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어쩌면 거의 간구하지도 않는 은사이지만 이것은 뛰어난 가치를 지닌, 모든 후기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은사입니다. ...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영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들은 거짓 영을 간파해 낼 수 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서 이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사를 지니거나 행사함으로써 그들은 어떠한 악의 영향도 마음에 들어오게 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을 뿌리칠 것이며, 혹시나 그러한 영을 지니게 되더라도 그 영향을 보는 순간 쫓아 버릴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 영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이끌려가기를 거절할 것입니다.”¹

우리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이 영적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

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분별력은
쇠막대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길을 밝혀 주는
불빛입니다. 분별력을 통해
우리는 어둠의 안개를
안전히 통과해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보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강한
분별력의 축복을 가져오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보좌였던 스티븐
엘 리차드 회장(1879~1959년)은 분별력의
특성과 축복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분별력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상당히
발달되었다면 어떤 느낌, 즉 영적 느낌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을
깨끗이 보고, 숨겨진 악을 간파해 내고, 더욱
중요하게는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선을 발견해
내는 감수성 말입니다. 분별력의 가장 뛰어난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서 더 나은 본성, 즉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인지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

“… 회복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원한다면 이러한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파괴를 일삼는 미신 집단에 의해 길을 잃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그릇된 가르침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그릇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돕고, 죄가 품고 있는 위험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양심이 늘 깨어 있도록 돕는 이러한 지각
능력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²

캐논 회장과 리차드 회장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별력의 은사가 다음 네
가지 방법에 따라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표면을 깨끗이” 볼 때 분별력은
다른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잘못과 악을 간파하게
해 줍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잘못과 악을 간파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의 영적 은사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분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캐논 회장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셋째, 분별력은 다른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는 선을 찾아내게 해 줍니다.

그리고 넷째로 분별력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선을 찾아내게 해 줍니다. 참으로
분별력의 영적 은사는 얼마나 큰 보호와 인도의
근원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분 별력의 은사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훨씬 먼 전망까지 열어
줍니다.

숨어 있는 악을 찾아내고 감추어진 선을 밝혀내는 분별력에 관한 캐논 회장님과 리차드 회장님의 가르침은 리하이의 시현의 한 가지 구체적인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과 제게 더욱 큰 의미를 줍니다. 그 시현에서는 여러 무리가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이 쇠막대를 따라 나무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시현에서 묘사된 어둠의 안개는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넓은 길로 이끌어 내어 길을 잃게 하는 악마의 유혹을 나타냅니다. (니파이전서 12:17 참조)

이제 니파이전서 8장 23절에 특별히 주목해 주십시오. 이 성구를 우리 시대와 점점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에 비추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매,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

저는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길을 밝혀 주는 불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안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통과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리한 영적 방향 감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른 것을 인식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분별력은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단지 좋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별하게 해 줍니다.

분별력의 은사는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훨씬 먼 시야까지 열어 줍니다. 분별이란 영의 눈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즉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거짓 생각 또는 선함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분별이란 영의 귀와 마음으로 듣고 느끼는 것, 즉 어떤 말에서 표현되지 않은 무언의 걱정, 또는 간증이나 교리의 진실성을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회원들과 신권 지도자들에게 하신 권고를 자주 들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패커 회장님의 의견은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은사를 적절히 소망하고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찰력과 분별력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려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영적 은사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방황하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를 때만이 우리는 천상에서 오는 분별력의 은사와 보호와 인도의 빛을 얻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내 이들과, 주의하여 너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간수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엘마서 37:47)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며 구주시라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하여 여러분이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게 되고 참된 분별력을 갖는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2005년 5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주

1. *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George Q. Cannon*, 편저. 제럴드 엘 뉴퀴스트 (1987), 156~157쪽.
2. 대회 보고, 1950년 4월, 162~163쪽.

우리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브라함 메네스 사그레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신혼부부였던 아내와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품 또는 멋진 저녁을 마련할 돈이 없었다.

우리는 집도 직장도 없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업직 일자리를 구했다. 수입은 식비와 집세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었다. 나는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갔고, 때로는 어느 정도 물건을 팔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다. 물건을 팔지 못했을 때에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나를 미소로 맞아 주었다. 그럴 때면 힘든 일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다.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성대하다. 독신 시절, 나는 대구와 사탕무, 오렌지와 땅콩이 들어 있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저녁 식사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돈과 빌린 가스 탱크로 연료를 넣는 조그마한 가스 스토브가 전부였다. 냉장고도 없었고 거실이나 식당에서 쓰는 가구도 없었다. 단지 할머니가 주신 작은 탁자와 친구가 준 의자 두 개뿐이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그분께 나아갔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모든 것이 잘 되리란 느낌이 들었다. 차 트렁크를 열자, 한쪽 구석에 있는 말린 생선이 보였다. 몇 개월 전에 아버지를 도와 생선을 옮겼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남겨진 것이 틀림없었다. 소금 덕분에 생선은 상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생선을 보여 주자 그녀는 그것으로 요리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토마토와 그 밖의 재료를 사러 갔다. 우리는 생선을 씻어 물에 담그어 소금기를 빼냈다.

그날 밤, 우리는 희미한 불빛 아래 페인트칠도 되어 있지 않은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보다 더 가진 것 없이 태어나신 그분을 기억했다. 우리는 그 동안 먹어 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침대에 누운 채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았다. 아주 행복한 하루였다. 가난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영은 우리의 작은 집을 밝혀 주었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1월에 딸이 태어나면서 우리 집에 더욱 큰 행복이 찾아왔다.

그때 이후로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가 오고 갔다. 이제 장식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소나무 향기 없이 지낼 일은 더 이상 없다. 맛있는 요리를 곁들인 훌륭한 크리스마스 만찬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함께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가난했지만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서 가장 풍족했던, 우리 단 둘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였다. ■

질문의 응답

“저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성전에서 인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후기 성도 가족이 아니라는 느낌이 때때로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후기 성도 가족은 모두 서로 다릅니다. 가족마다 그 가족만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각 가족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온전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형제님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입니다.

가족에게서 배우고 미래의 가족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여러 가지 결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한 가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의 장점과 약점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님이 결혼해서 갖고 싶은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오늘 내린 올바른 결정으로 영원한 결혼을 소망하고, 그 결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형제님의 가정이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혼했을지라도 그분들은 여전히 형제님의 부모입니다. 그분들은 형제님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형제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언젠가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복음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복음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이 시련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성신이 형제님을 위로하실 것이며 속죄가 형제님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의롭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주시고자 속죄하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는 영원한 가족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형제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형제님의 개인적인 합당성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합당한 사람 모두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이상적인 생활 양식에 가깝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여기 지상에 있는 동안 더 큰 행복과 만족과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쪽)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족 문제가 있으면 슬픔에 잠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시련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형제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이며, 형제님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은 미래의 자녀들이 영원한 가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족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강화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다른 가족과는 다른 어려움과 은사를 가진 형제님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형제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도움이 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제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셨다가 다행히도 재결합하셨는데, 당시 저는 형제님이 질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위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고통과 의문에 시달릴 때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저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답이 들어 있는 장을 읽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외감을 느낄 때면 경전을 읽고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마리 피, 13세, 미국 애리조나



저 또한 부모님이 헤어졌을 때 같은 기분이었지만 극복해 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형제님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서 형제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형제님은 교회 회원이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형제님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로버트 에스, 15세, 필리핀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은 교회 지도자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형제님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고, 친구들은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며, 오히려 형제님이 가족을 더욱 단합되도록 돕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에는 생의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심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후안 비, 17세, 브라질

형제님이 형제님의 가족과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형제님은 형제님의 삶에서 부모님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을 기억하세요. 언젠가 형제님이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세요.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끼지 마시고, 참된 교회의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소외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 교리와 성약 68편 6절을 읽어 보세요.

주디스 오, 14세, 미국 메릴랜드



형제님의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되었든 인봉되지 않았든,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낙담하거나 교회에서 외부인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형제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부모님의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요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에이치, 20세, 나이지리아

저는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와는 다른 지부에 계셨고 어머니는 일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이 혼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실망이나 실패했다는 느낌이 여러분의 결혼이나 인생관을 부정적으로 물들이게 하지 마십시오. 결혼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고 괴로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사랑했던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

“우리 각자가 후기 성도로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외인’이나 ‘나그네’라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에베소서2:19)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1907~1995년), “만인을 위한 교회”, Tambuli, 1990년 8월호, 45쪽)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려운 일이었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간중에 충실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형제님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영을 지니기 위해 노력한다면 형제님은 이 생애에서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스 디, 18세, 미국 네바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교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므로 교회에 배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족 상황을 겪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복음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시각을 줍니다. 지금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형제님의 가족이 생겨 영원한 관계를 맺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준비를 시작하세요.

익스첼 시, 23세, 멕시코

리아호나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복음에 계속해서 충실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제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 (또는 지부 및 지방부), 그리고 사진(사진을 실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1/07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2007년 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사라 클리블랜드, 전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Relief
Society Minute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1842년 3월
17일, 12쪽; 1842년 4월 30일, 24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1보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축복 받은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분과
성약을 맺었으며,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서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상호부조회를 택한
것입니다. ...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충실한 여인들이
왕국 건설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기 위해

함께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성약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것은 신성한 부름과 봉사, 사랑, 서로를
돕고자 하는 의욕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맺은 성약으로”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8쪽)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상호부조회는 어머니들에게
훌륭하게 딸들을 훈육하고, 남편과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예의범절과 용기를
가르치도록 그 길을 안내합니다. ...
아내와 어머니와 딸이 모두
상호부조회에 속하게 될 때 가정과
가족의 방어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 강건한
상호부조회는 어머니와 딸들,
혼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독신
자매들, 노약자들에게 엄청난
면역력과 치유력을 줍니다. ... 이
들[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은
가족을 영원히 지키는 것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72~74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를 축복하십니다. 한 세기 반
이상 동안 이 조직의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온 사랑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세계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의 자애의 손길이
펼쳐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자애가
무수한 사람들의 생활에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이 특별하고 거룩한 조직으로
말미암아 빛과 이해력, 배움과 지식,
그리고 영원한 진리가 세계 만방에서
이어질 세대의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를 기원합니다. 상호부조회
여성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들의 커다란 책임이며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앨마서 26:3)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6쪽) ■





린 에이 미컬슨 장로
칠십인

기도에 대한 저의 안일한 태도는 캠핑을 하며 보낸 어느 날 밤 변했습니다. 재빨리 침낭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나에게 “린, 너는 기도 안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한 해 중 이맘때가 되면 저는 구주와 조셉 스미스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경전에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십대 시절,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한 권으로 묶인 경전 합본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가 친필로 쓰신 메시지가 실려 있었고, 겉 표지는 가죽 장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선물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 사실, 저는 그것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경전 합본은 제게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십대였을 때 구주와 그분의 생애에 대해 배웠던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경전 합본은 선교 사업 동안 저와 함께했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할 때도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귀중한 재산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래의 표지는 닳아져 새 표지로 교체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의미 있는 경전은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같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그의 간증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조셉 스미스 자신이 성스러운 숲에서 보았다고 한 것을 그가 실제로 보았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셉이 기도하여 그 성스러운 경험, 즉 첫번째 시현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셉이 받은 것과 같이 강렬한 시현이나 응답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어떤 느낌이든 질문에 대한 답이든 결정에 대한 확인이든 우리 또한 분명하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

저는 조셉 스미스에게 기도가 필요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십대가 되기 전에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십대가 되었을 때, 저의 믿음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지는 않았습니. 어느 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몇몇 청년들과 야영을 갔고, 친한 친구 한 명과 한 텐트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침낭 속으로 재빨리 들어간 저는 침낭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침낭 속에 들어가면서 “린, 너는 기도 안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만큼 자주 하지는 않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누구도 다시는 제가 기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너는 기도 안 하니?”

저는 또한 조셉 스미스가 기도할 때 왜 혼자 있고 싶어했는지 이해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모르는 한 청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가 보지 않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자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침낭에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 “린, 넌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급히 잠자리에

드느라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잠자리에서 다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주를 읽

저는 선지자 조셉의 구하는 용기와 신앙,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믿기 위한 그분의 준비에 대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사랑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계시를 통해 저는 세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속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알수록 구주에 대한 제 간증과 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갖게 해 줄 따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간증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 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큰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됩니다. ■



시계 하나, 단추 몇 개,

그리고 조셉의 외투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 전시된 최근의 전시물들은 조셉 스미스의 일상 생활을 보여 준다.

샬리 오데커크
교회 잡지

오랜 과거로부터 온 금시계 하나, 외투 한 벌, 녹슨 농기구, 석필. 1800년대의 이 평범한 물건들은 조셉 스미스의 일상 생활에서 나온 의미 있는 물건들이다.

2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남긴 문화 유물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유타 주 시터 힐스에서 온 열세 살의 매켄지 헤드 자매는 이러한 물건들을 보기 위해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을 찾았다. 그녀는 선지자가 생활하며 사용했던 이러한 유물들을 본 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오늘날 우리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또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선지자가 실제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그분에 대한 나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다.”라고 기록했다.

다음은 교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문화 유물의 사진이다.

사진 해설은 박물관의 마크 스테이커 관장이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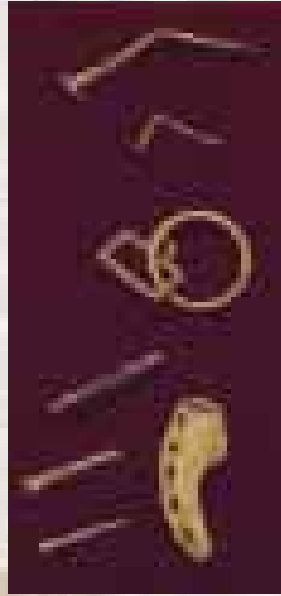
왼쪽: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금판의 복제품. 세 증인 중 한 명이었던 마틴 해리스는 책처럼 넘길 수 있도록 금판에 은으로 된 세 개의 고리가 끼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래: 단추와 버클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스미스 가족의 통나무 집터에서 고고학 조사를 하던 중 발견된 것이다.



위: 보조 가슴판, 루시 맥 스미스가 1841년에 아들 조셉을 위해 만들. 가슴이라 알려진 이 대중적인 남성복 장식구는 일반적으로 단추나 술기를 감추거나 장식을 위해 입었다. 왼쪽: 조셉 스미스의 소유였던 이 금시계는 변호사 고용 비용으로 처분되었다.

위: 이 요람은 1805년경 제작된 것으로 조셉 스미스 가족이 사용했을 요람과 유사하다.

오른쪽: 이 뿔과 편자는 조셉 스미스 통나무 집터에서 발견되었다. 둥근 금속 조각이 낫의 손잡이에 붙어 있다. 소년 시절, 조셉 스미스는 곡식을 베기 위해 이 낫을 사용했다. 아래: 나무 성전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



아래: 다리 수술에서 회복한 조셉은 이와 같은 목발을 사용했다.



가장 왼쪽: 이 석필은 조셉 스미스의 부모가 가정에서 그에게 읽기, 쓰기 및 수학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이 물문경 초판은 조셉 스미스가 마틴 해리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것은 세 증인의 증언으로 시작된다. 오른쪽: 선지자는 나무 군단 중장으로서 이 외투를 입었다.

이 은 국자는 조셉과 에머 스미스의 것이었다.



오른쪽: 스미스의 한 여성
소유했던 귀걸이. 가장 오른쪽:
루시 맥 스미스 소유의 금목걸이



왼쪽: 이 수술 도구는 조셉 스미스가
어렸을 때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그의
다리뼈가 감염되어 뼈의 일부가 썩어
들어갔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라고
권했지만 조셉과 그의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다.

오른쪽: 이 Nauvoo Neighbor 잡지는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후에 발행되었으며,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출판되었다. 아래: 선지자의 사망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몇몇 친구들에게 전해졌다. 1800년대 중엽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는 일이 흔히 있었다.



목발의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드, 오투, 비에나, 사크 중역, 수술 도구: 윌리엄스 중역, 머리 타래: 클라라 더블루 비브의 예이 이 레이드 인쇄 중역.

... 하이든 회복으로 회개



맨디 안드레

사전에는 회복하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실존 상태나 ... 이전 상태 또는 원상태로 돌리는 것”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년], 1063쪽)이라고 나와 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주의 재림 전 마지막으로 복음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1820년,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시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회복이 나의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다음은 평상시 한 주 동안 회복이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보여 준다.

지난 일요일, 아버지께서 신권 축복을 해 주셨다. 회복으로 인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나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

월요일,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나 기도를 드렸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분의 딸임을 알았다. 나는 또한 몰몬경을 읽었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갖고 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했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 받았다.

화요일, 나는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했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수요일, 나는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골랐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함을 알았다. 나는 또한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신 지침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침들이 들어 있다.

목요일, 나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나를 항상 도와주는 동반자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나에게서는 특별한 조연자로서 나를 지켜보시는 감독님과 청년

지도자들이 있다. 회복으로 인해 나는 속죄에 대해 알며, 그로 인해 나는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다.

금요일, 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회복으로 인해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 친구들은 내 생의 큰 축복이다. 내게는 또한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다.

토요일, 나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타일러 오빠를 생각했다. 오빠가 많이 보고 싶지만 회복으로 인해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안다. 나도 언젠가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

돌아온 일요일, 회복으로 인해 나는 성찬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나의 약속을 새롭게 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며, 언젠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복음의 회복으로 인해 나는 경전이 참됨을 안다. 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임을 안다. 나는 오늘날 살아 계신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안다. 또한 회복된 성전 의식을 통해 나의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안다.

회복으로 인해 우리는 한 주의 모든 날들, 생의 하루하루를 축복 받고 있다. ■



왼쪽: 브리검 사티 제임스 드 건물의 복음 유리창 사진. 맨들 케이 피스톤, 오렌주, 사진 촬영. 존 루크, 매튜 리머 및 크리스티나 스티스, 모델이 표지를 취함

도전에 응함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일 년 전인 2005년 8월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요청했던 대로 몰몬경 읽기를 마쳤다. 교회 잡지는 도전에 응했던 사람들이 보낸 간증과 경험과 감사를 담은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

“저는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이 이 교회의 회원들에게 분명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병원 대기실에 있는 동안, 그리고 다른 많은 상황에서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믿으며, 또 그랬기를 바랍니다.”(고든 비 힝클리,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3쪽)

매일 저녁 7시.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저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연히 누군가의 방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읽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딸들(12세, 13세)의 독서 능력 또한 향상되었고 우리 모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자제력과 시간 관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질서의 집을 갖는 것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단합이 커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 아카니트 사프라스트, 타이 빠크렛*

하늘에 다가감. 저는 항공기 승무원입니다. 객실을 지나가면서 몰몬경을 읽고 있는 승객을 볼 때 저는 고무되었습니다. 승객을 위한 서비스를 마친 후에 저도 한두 장을 읽을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그날 배운 것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통 오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비행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며 읽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브린 아넬, 미국 유타 주 파밍턴*

오디오 경전. 차를 몰고 직장에 오갈 때, 저는 라디오를 틀고 뉴스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마지막 4개월 동안에는 CD로 몰몬경을 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에 본사 사무실에서 모로나에서 마지막 장을 다 들었습니다. 이 좋은 경험을 통해 저는 몰몬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투로 말도나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페인트통과 약탈. 우리는 바쁘게 생활합니다. 게다가 매일 몰몬경을 읽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몰몬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독특한

장소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집을 새로 가꾸는 동안 우리 가족은 페인트 통 위에 앉아 읽기도 했고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읽기도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네 살짜리 우리 꼬마가 잘 듣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방이 왜 그렇게 어질러져 있는지 물었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약탈해 갔나 봐요!” *벅스톤 가족, 미국 유타 주 웨스트 포인트*

그림을 완성함. 남편과 저와 세 자녀는 몰몬경을 개인적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금판을 들고 있는 고대 선지자의 사진을 다섯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읽기를 완성함으로써 그 그림을 완성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막내 이들은 아직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어린이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거나 다시 읽는 것]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몰몬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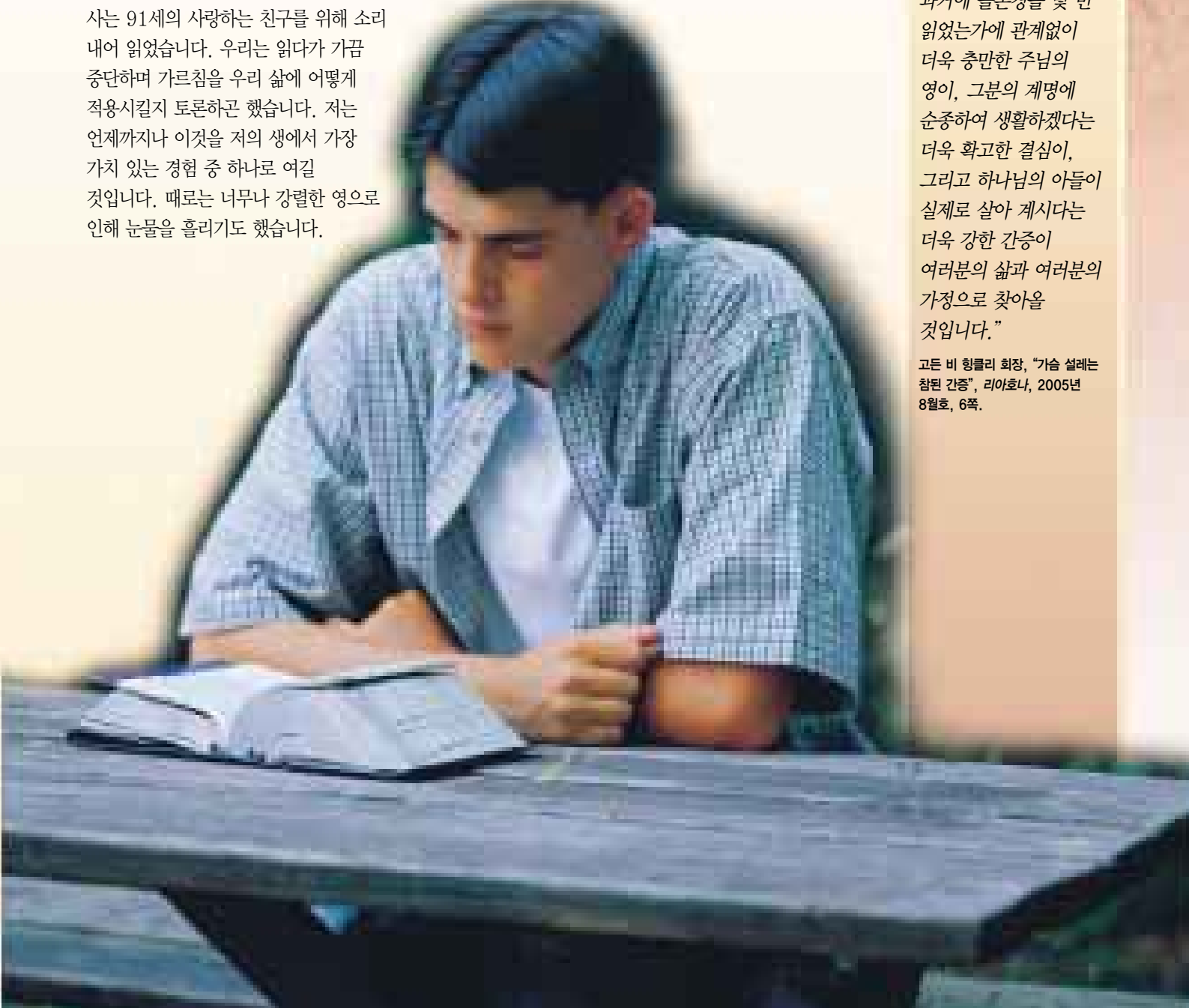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한 명씩 읽기를 마쳤고 우리는 아직 목표를 달성 중인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모두 끝냈으며, 그리고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고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시나라 릴리안 레앙 마차도, 브라질 상 카를루스

소리 내어 읽기. 저는 우리 집 옆의 작은 집에 사는 91세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는 읽다가 가끔 중단하며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토론하곤 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이것을 저의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중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강렬한 영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목표를 주신 현명하고 영감 받은 선지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실비아 윌리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햄스테드

몰몬경 통근. 저와 제 약혼자는 매우 천천히 몰몬경 공부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타 주 세인트조지에서 온 청년들이 그 목표를 받아들여 핑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목할 만한 어떤 일”을 경험했다.

우리는 둘 다 기차를 타고 직장에 갑니다. 통근하는 동안 세상 일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몇몇 사람이 우리가 읽고 있는 것에 관심을 보였을 때, 저는 그들과 간증을 나누고 전도용 카드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루시어나 마르틴스. 브라질 상파울루

내 것으로 만들. 저는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몰몬경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자주 강조되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에게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은 굵은 글자꼴로, 역사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흥미가 있는 구절은 사체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유용한 배경이 되는 주석과 참조 성구를 삽입했습니다.

계속해 나가면서 많은 영감이 떠올랐고, 저는 이러한 영감을 주석 표시로 삽입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주석 표시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 많은 것들이 가족과 제 생활, 그리고 제 교회 임무 지명에 적용되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몰몬경에 대한 글을 썼지만 이 많은 주석들은 몰몬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의 용도에 꼭 맞는 사본을 만들어 출력했습니다. 존 엠 테일러, 미국 유타 주 바운티풀

몰몬경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지난해 저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몰몬경을 다시 읽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수히 많은 분들이 그 권고에 응했습니다. 1841년,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3쪽)

시간의 선물. 이 목표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바빠서 읽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나중에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만약 끝내지 못한다면 너무 바빴다고 말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 날에는 시간이 정지되어 모든 것을 완수할 기회가 허락되는 듯했습니다. 이 축복은 제 바쁜 생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완수하면서도 가족과 교회 부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줄리 메이저, 미국 유타 주 니블리

평화와 용서. 2005년 초에 남편은 두 남자를 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 그의 사페쿠(날이 넓은 칼)가 없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돌아온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평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잠이 깨서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침입자가 자녀들과 우리가 자고 있는 방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나 그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까지 넘치는 화평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 물건을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나는 그와 같은 평화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일까?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몰몬경 읽기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규칙적으로 몰몬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슬린 아프, 사모아 페세가

영원한 가족. 저와 우리 가족은 개종자입니다. 아버지는 2000년에 침례 받으셨고, 성전 준비반에도 몇 번 참석하셨지만

영국 사진 촬영, 유더 세인트조지 웨스트 스테이크, 다이어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어트, 모렐이 포즈를 취함

주목할 만한 어떤 일: 축복에 대한 간증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

인도가 필요했을 때, 성신은 제 곁에 계셨고 저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었습니 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좀 더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라 버티에이, 프랑스 디종

매일 아침 저는 성신이 함께하셔서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 다. 물론경이 제게 새롭게 퍼져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타티아나 바이셰미르스카야, 우크라이나 크림

저는 하루 종일 좀 더 많은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적 평화를 느꼈습니 다. 그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 다. 리비아 줄레마 루나 데 루비오, 멕시코 레온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

놀라운 영적인 힘의 축복이 약점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축복은 너무나 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저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끝마치는 데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비 클라크,
미국 유타 주 시러큐스

우리는 정규적인 가정의 밤과 아침 저녁 기도, 그리고 물론 경전 공부에 대한 열의를 축복 받았습니다. 경전 공부는 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게 해줍니다. 레슬리 킨, 미국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폴스

저는 말씀을 읽는 것에서 제가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단계로, 또 매일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마침내는 내 영혼에 영원히 그 말씀을 새기는 단계로 나아갔습니 다. 시 이 타피 롬 이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버나디노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

매일 좀 더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몰랐던 물론경과 다른 경전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성령으로 인해 구속주에 대한 제 자신의 간증이 커졌습니다. 다그마 레이, 독일 함부르크

물론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읽음으로써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저의 옹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호라시오 체민, 아르헨티나 라우손

제3니파이를 읽기 시작할 즈음에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자주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제가 읽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게 여기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이 은사로 주어졌으며, 저는 어떻게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스 엠 존, 미국 유타 주 옥든



성전에 가기를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몰몬경을 읽으라는 헝클리 회장님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것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월에 한 고등 평의원이 단호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저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가족 인봉을 받을 날짜를 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0월 말에 성전에 가셨고 우리는 11월 19일에 인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몰몬경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집에 들어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니엘 크레인, 미국 유타 주 샌디*

단순하고 작은 일. 저는 그 도전에 응했습니다. 큰 기적은 아니었지만 단순하고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성령의 부드러운 인도를 느꼈습니다. *마크 베이더, 미국 유타 주 리버튼*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헝클리 회장님이 몰몬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 가족 평의회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밤 몇 구절씩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금년 말까지 몰몬경을 읽으라고 요구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려 하다니? 그날 밤 열린 가족 모임에서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힘차게 대답하는 가족들의 “네!”라는 반응에 놀랐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휴일이나 생일이나 피곤한 밤에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위대한 책의 영을 강하게 느끼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복음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가족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우리의 간증이 강해졌음을 느꼈고 아이들이 마치 선교사로 봉사하며 수년간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경전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손 오리ერი, 미국 워싱턴 주 포울스보*

타인을 위한 통찰력. 목표를 따르는 동안 저는 모사이아서 18장을 읽었고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약 이틀 후에 저는 한 새로운 회원과 모임을 했습니다.(저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왜 다시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주저 없이 모사이아서를 열고 그에게 18장을 읽어 보게 했습니다. 읽기를 마치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말하기를 나와 상담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지자의 은사와 몰몬경을 다시 읽으라는 그분의 목표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킹베이드 에이 오호, 나이지리아 아이제브-오테*

받을 수 있는 축복.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자, 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의 계획,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된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분께 말씀드리고자 기도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곤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의 선지자께서 주신 목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했을까? 우리가 몰몬경을 매일 읽을 때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앤젤라 브로데릭, 웨일스 머터 티드필* ■



홍콩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헝클리 회장의 중국 홍콩 성전 부지 선정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계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준다.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와
존 케이 카맥 장로
칠십인

19 91년 봄에 제일회장단은 몬트 제이 브러프, 더블류 유진 헨슨, 메릴 알 리버트 장로로 구성된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게 홍콩에서 은밀히 성전 부지를 물색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작고, 그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며, 너무 비싼 부지를 몇 군데 찾았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그 해 4월에 그 부지들을 모두 둘러보신 후, 지역 회장단에게 계속해서 찾도록 권유하셨다.

1991년 말 경에 두 곳의 부지가 더 확인되었다. 한 곳은 “정크 베이” (“정크”는 중국식 돛배임)라는 항만 근처로 정부 개발 계획에 속해 있었다. 다른 한 곳은 판링에 있었다. 그러나 판링도 정크 베이도 성전을 이용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거나 편리한 곳이 아니었으므로 부지 물색은 계속되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홍콩에 성전을 지으려면 1997년 7월 1일까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1997년 7월까지 홍콩에 성전을 완공해야 하는 긴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듯하다. 1898년에 중국은 홍콩을 1997년 6월 30일까지 99년간의 영국의 조차지가 되도록 하는 영국과의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홍콩은 영국의





위: 홍콩 성전
 기공식(왼쪽부터) 대릭운
 장로 부부, 존 케이 카먹
 장로 부부,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부부. 반대편:
 건축가의 elevation ren-
 dering(형태를 미리
 예상하여 음영이나 색채로
 묘사 표현하는 입면도),
 완성된 성전에 대한
 예술가의 구상, 홍콩 전망.

식민지가 되었다. 1984년 12월, 영국과 중국
 당국은 영국 정부가 홍콩을 중화 인민 공화국에
 1997년 7월 1일까지 반환할 것을 확인하는
 선언서에 서명했다.

1992년 6월, 아시아 회장이 개편되고 새로운
 회장단으로 몬트 제이 브러프, 존 케이 카먹 그리고
 대릭운 장로가 부름을 받았다.

7월에 핑클리 회장은 판링과 정크 베이 부지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아시아 회장단을 두 차례
 불렀으며 성전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회 시설부
 책임자인 테드 시몬스 형제와 함께 7월 25일에
 홍콩에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핑클리 회장과 시몬스 형제가 도착하자, 브러프
 장로와 카먹 장로는 그들을 지역 사무실이 있는 콧
 통 홀부터 시작해 물망에 오른 여섯 군데의 부지로
 안내했다. (대 장로는 당시 홍콩 외부로 여행
 중이었다.) 부지를 둘러보고 난 후 핑클리 회장과
 시몬스 형제, 브러프 장로, 카먹 장로는 홍콩 지역
 네 명의 스테이크 회장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핑클리 회장은 이 여러 개의 부지에 대한 소감을
 말한 뒤, 스테이크 회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들은
 어떠한 결정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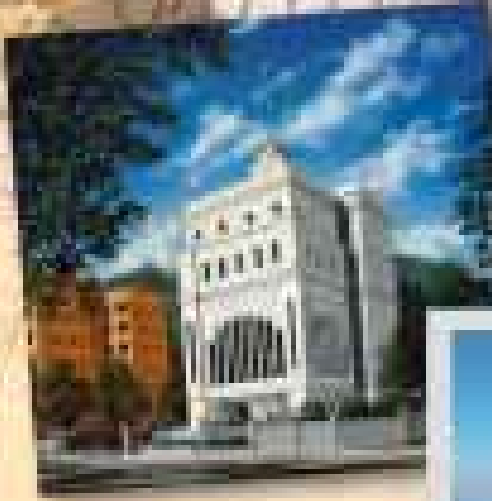
그들은 여러 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하느라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지쳐
 있었다. 핑클리 회장은 호텔로 쉬러 가면서 브러프
 장로와 카먹 장로에게 다음날 아침 다시 와서 좀 더
 의논해 보자고 요청했다. 지역 회장단은 핑클리

회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아침 6시 45분경, 핑클리 회장은 브러프
 장로에게 전화하여 8시에 호텔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시몬스 형제도 그 시간에 왔고, 핑클리
 회장은 흰 종이에 그려진 세부 설계도를 보여
 주었다. 그가 밤 사이에 구상한 그림은 건물의 가장
 위층은 성전으로, 아래층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상 8층 건물이었다. 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기존 건물들을 파괴해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코우룽 통 예배당과 홍콩
 선교부 사무실 및 사택을 위한 대체 시설이
 포함되었다. 핑클리 회장은 당시 교회의 다른 모든
 성전들이 독립형 건물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
 다용도 개념은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핑클리 회장은 브러프 회장과 카먹 회장에게
 그들의 생각을 말해 보라고 했다. 그들은 다층으로
 된 다용도 건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핑클리 회장이 주님의 뜻에 대한
 영감, 나아가 계시를 받았다는 확신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한 후
 핑클리 회장은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해도 좋을지 물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했다. 그는 그 지역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중국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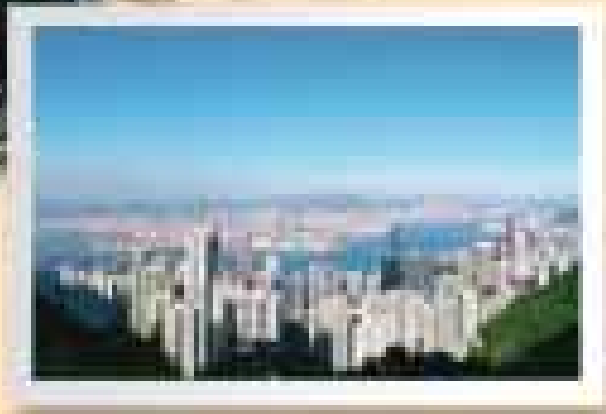
대해 기도했다. 그 기도는 힘이 넘쳤고 마음을 끄는 기도였으며, 아시아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

참석자들은 이후 코우룽 통 부지로 돌아가 그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들은 길을 건너 모든 각도에서 그 부지를 살펴보고, 특히 지하철에서 접근하기가 어떤지 검토했다. 그런 다음 브러프 장로와 카맥 장로는 핑클리 회장과 시몬스 형제를 카이탁 국제 공항으로 안내했다.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간 핑클리 회장은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성전부에 제출해 설계자에게 그 구상을 최대한 빨리 건축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부서의 설계자들은 그 건물의 기능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살펴본 후 더 큰 건물을 구상해 핑클리 회장이 제시한 구상의 거의 배가 되는 건축 계획을 세웠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건물에 적용되는 고도 제한과 그 밖의 규제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계획이 완성되자 이 확장된 건물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고 여러 달에 걸쳐 홍콩 관리들과 협상했으나 건물 제안은 거절되었다.

199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핑클리 회장은 시몬스 형제와



브러프 장로, 카맥 장로 및 타이 장로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왜 승인 절차가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아시아 회장단은 이전에 홍콩에서 있었던 핑클리 회장의 경험과 그 당시 아시아 회장단의 느낌에 대해 간증하고 난 후, 핑클리 회장이 홍콩에서 설명했던 계획으로 돌아가자고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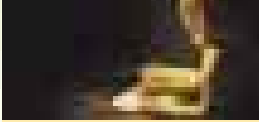
핑클리 회장의 스케치에 나와 있던 원래의 구상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수정되자 필요한 허가가

신속히 주어졌으며, 수일 내로 영국, 홍콩, 중국의 여러 관리들이 성전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1996년 5월 26일과 27일, 핑클리 회장은 중국 홍콩 성전을 헌납했다. 헌납 기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이 거룩한 성전의 헌납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당신의 교회가 무르익게 되었나이다. 이 영혼의 수확이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지속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자유롭게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고 아무도 이 지역에 부름 받은 선교사들의 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간구하옵나이다. 당신의 사업이 이 위대한 중국 영토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며, 통치자들이 계시된 진리를 전하는 사자로 부름 받고 파견된 자들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구하나이다.” ■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는 1988년에 칠십인으로 지지되었으며 존 케이 카맥 장로는 1984년에서 2001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호르헤 루이스 델 카스티요 장로

지역 철십인
남미 남 지역



십일조의 원리는 우선적으로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 형제 중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온 가족에게 있어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 외곽 지역인 베르날에 위치한 우리 집 문을 두드린 멋진 두 선교사의 도움으로 개종하시고 제가 네 살 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께서서는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분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 준 그 종교를 사람들이 찾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항상 소망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의 첫 해가 지나는 동안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봉사하고 있던 도중,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의사들은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말기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은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다음날 선교 임지로 돌아와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에 갔고,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불명으로 부동의 상태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슬픔과 평안의 시간, 그리고

영이 풍성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은 주와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집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지만 알아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선교사인 장남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뺨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며 말문을 열기 위해 무던히 애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성인과도 같은 분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해.” 그런 다음 저는 그분의 입에서 다음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록 네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십일조는 꼭 내거라.”

아버지는 그 외에 더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일지에 그분의 말씀을 적고, 집을 떠나 선교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이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녀에게 어떤 마지막 권고의 말을 남기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받았던 권고, 즉 “비록 네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십일조는 꼭 내거라.”라는 말씀보다 더 나은 권고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십일조의 율법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는 주께서 저의 십일조가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오는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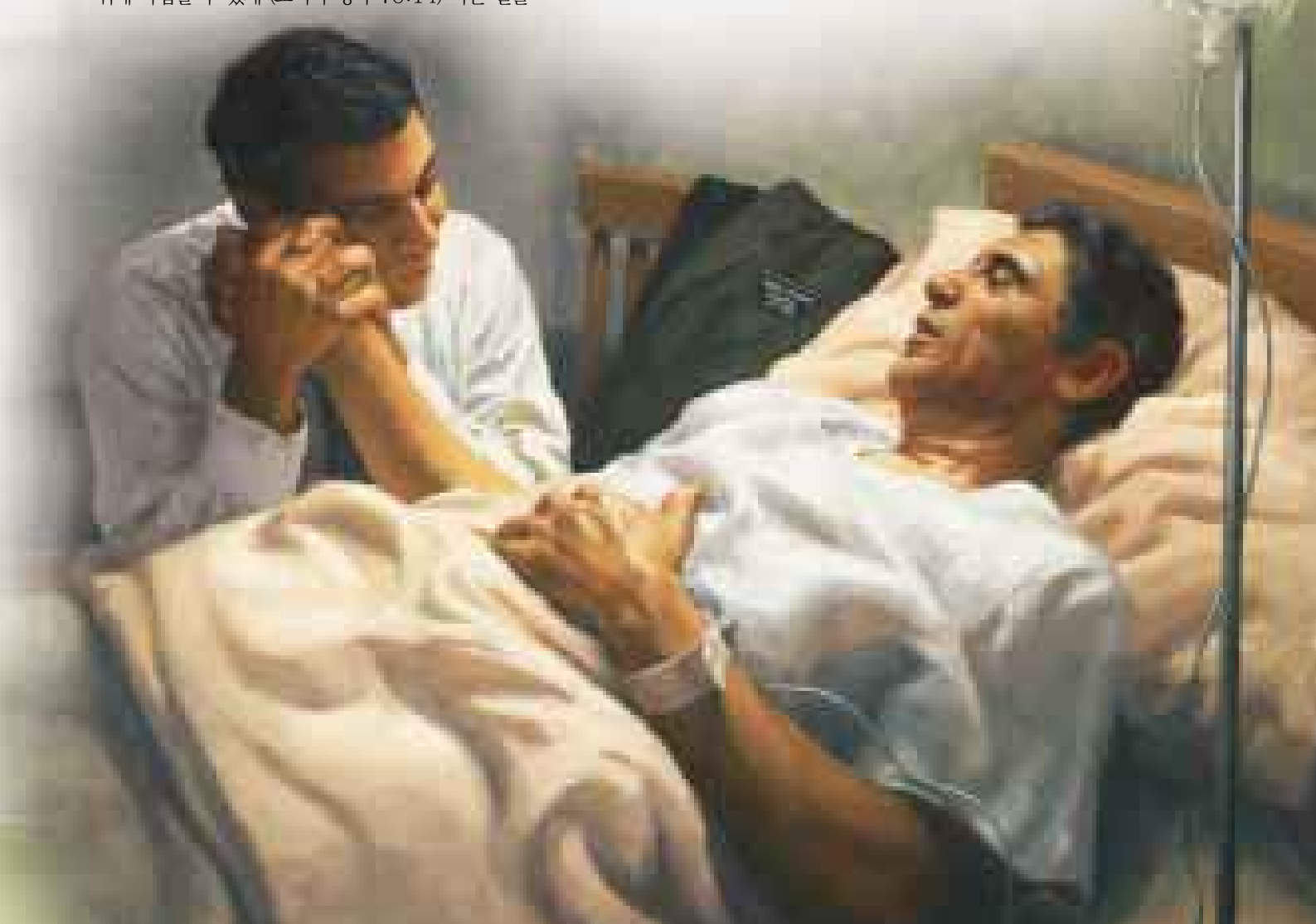
저는 또한 우리의 현금 봉투가 두꺼운지, 아니면 단 몇 개의 동전밖에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십일조가 수입의 10퍼센트라면 우리는 주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주의 협력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뒷받침하며,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모든 의식들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소 건축을 뒷받침하며, 여기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매주 일요일에 참석하고 또 합당할 경우 성찬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지상 끝까지 퍼지도록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교리와 성약 78:14) 하는 일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십일조의 율법을 제 가정을 보호하는 율법,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자원에 대한 건전한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깁니다.

십일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교회 회원들은 그 율법이 우선적으로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주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져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

호르헤 루이스 델 카스티요 장로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내 선물을 다시 나눠 준 사람

델린 그래스믹

나는 11년 동안 유타 주 프로보의 급식 및 보호소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다. 우리는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마이크(가명)라는 사람은 약 4년 동안 자신의 차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자원하여 도와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가 나를 위해 해 준 모든 일들이 고마웠다.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자 나는 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짧은 감사 메시지가 적힌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1달러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인근 극장의 입장권 책자를 그에게 선물했다. 마이크는 크게 놀라워했다. 그는 내게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으며,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정오 경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마이크가 찾아와서는 영화 입장권 두 장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입장권은 이미 그의 것이므로 그것으로 그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글쎄, 한 여자가 저녁 식사 때 제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전에 만나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생일인데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장권 하나를 주었죠.”

“그리고 제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라고 마이크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가 오늘 밤 버스를 타고 떠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출발 시간은 11시였고 그는 그때까지 들어가 기다릴 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극장에 들어가 따뜻한 곳에서 영화를 보라고 입장권 하나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맺히고 너무도 목이 메어서 나는 그가 얼마나 관대하며 그리스도적인 일을 했는지 그에게 말해 줄 수가 없었다. ■

“그래서 극장에 들어가

따뜻한 곳에서 영화를 보라고 입장권 하나를 주었습니다.”라고 마이크가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타말리

이나 부르시온

코스타리카에서의 선교 사업은 약 두 달 정도 남아 있었고, 나는 미국인 동반자 누이엔 자매와 봉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는 기분에 들뜬 채 우리가 살고 있던 작은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조그만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의 대부분을 몹시 가난한 지역에서 보냈으며,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 주께서는 내가 소박한 가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생활하며 그들의 친절함과 겸손, 그리고 희생 정신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나를 축복해 주셨다.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가 방문했던 마지막 가족은 카르모나 가족으로, 와드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 중 하나인 대가족이었다. 부모, 자녀, 친척, 그리고 손자손녀들이 모두 함께 함석으로 덮인 작은 나무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전기와 그 밖의 현대적 시설이 없었다. 그들은 휴일 동안 먹을 전통 음식, 타말리(역주: 옥수수 가루와 다진 고기를 고추 양념하여 옥수수 껍질에 싸서 찐 멕시코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물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매우 이른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놀랍게도 카르모나 가족의 13살 된 아들 미노르가 밖에 와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자매 선교사님” 그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자매 선교사님들께 이 타말리를 전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이 우리를 생각해 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다.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어쩌면 그 가족의 몫으로도 빠듯할 크리스마스 “만찬”의 일부를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나는 동반자에게 꾸러미를 보여 주었고, 그녀의 뺨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자매님,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부르시온 자매님, 크리스마스네요!”

그렇다, 크리스마스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을 그리스도와 나누듯 선교사인 우리들과 나누었다. 그 타말리는 그 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았던 유일한 선물로서,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 ■

까다로운 이웃

다이앤 허버드

남편과 나는 어린 아들딸과 함께 2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두 자녀들과 함께 그 해 크리스마스를 고대했다. 우리 아들은 빨리 자라고 있었고, 보통 아이들처럼 많이 움직이기를 좋아했다. 아들은 단지 재미를 위해 아파트 이곳저곳을 자주 뛰어다녔다. 우리는 아이의 장난을 즐겼지만 아래층에 사는 우리 이웃은 잘 견디지 못했다. 그는 양감음으로 종종 음악을 크게 틀었고 항의하러 위층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답답한 상황이었다.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한단 말인가? 활달한 에너지로 가득찬 시기에 아이를 꼼짝 못하게, 가만히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과 이웃을 함께 만났다. 대화를 나누며 나는 우리 이웃의 말과 태도가 유달리 방어적이라고 느꼈다. 대화하는 동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구주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굳이 그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군대에 있었고,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낯선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평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우 리는 요란한
음악에도
아랑곳없이
진심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그에게 빌어
주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를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시부모님을 맞아 그 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절기의 특별한 기운을 즐기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래층에서 나는 요란한 음악 소리의 진동을 느꼈다. 이번에는 소리가 매우 컸지만 짜증을 내기보다는 안됐다는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구절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이웃을 위해 집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과자를 접시에 담았다.

남편과 나는 과자를 전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이웃 사람은 문을 열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뭘니까?” 그가 불쾌한 만남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요란한 음악에도 아랑곳없이 진심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그에게 빌어 주었다. 우리는 미소를 지었고, 과자를 받으면서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도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고, 우리에게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빌어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음악 소리가 작아졌다.

며칠 후에 우리는 밖에서 그 이웃을 만났고 그는 과자에 대해 고맙다고 다시 말했다. 그는 다시 우리를 보고 웃었고, 우리도 답례로 쉽게 미소지을 수 있었다. 그가 마을에 새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다닐 교회를 찾았는지 물었다.

그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해서 우리는 그를 교회에 초대했고, 그는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는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곧 침례를 받고 싶어했다. 그와 우리 아들은 침례식 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시끄러운 음악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지만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받았던 특별한 축복은 기억한다. 크리스마스 과자라는 단순한 선물이 어떻게 불쾌한 관계를 놀랄만한 우정 관계로 빠르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은 포근해진다.



텅 빈 내 주머니

제리 엘 조그

1979년, 갓 시작한 우리 가족의 재정은 빠듯했다. 나는 콜로라도 주립 대학교의 학생이었다. 대출과 아내의 일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은 곧장 저축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매주 지출하기로 계획한 만큼의 돈만 인출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번 명절을 검소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네 자녀들 중 가장 큰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 인근 쇼핑 센터의 들뜬 분위기를 맛보기로 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12월 생활비를 전부 인출하여 명절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나는 금액 전부를 소액 지폐로 인출했다.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날씨는 차가운 바람 탓에 춥고 쌀쌀했다. 혼잡한 쇼핑 센터 주차장에 도착하자, 나는 밝고 따뜻한 상점가 안으로 들어갈 마음에 급히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게 했다.

한 시간이 훌쩍 넘도록 이 상점 저 상점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풍요로운 볼거리와 향기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우리의 외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나는 조금 전만 해도 돈으로 불룩했던 내 셔츠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왔던 길을 재빨리 되돌아가면서 나는 당황한 마음을 꼭 눌렀다. 그러나 돈을 주운 사람이 없느냐는 우리의 간절한 물음에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상실감은 더욱 커졌다. 마지막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안내대로 가 본 다음, 우리는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던 아내에게 이 나쁜 소식을 전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별한 지출은 고사하고 어떻게 식품을 사고, 월세와 공공 요금을 내고, 그 달에 필요한 다른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조용히 울면서 자기들끼리 속삭이기 시작했다. 근심에 잠긴 채 우리는 인도를 구하기 위해 모여서 가족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잃어버린 돈을 메우기 위해 가능하지만 비현실적인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쇼핑 센터의 안내원이었다. “얼마 전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얼마였지요? 그리고 얼마짜리 지폐였습니까?”

질문에 대답하자, 그는 우리가 쇼핑 센터로 다시 올 수 있는지 물었다.

조심스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짧은 거리를 되돌아갔다. 안내인은 바람에 날려 주차장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수많은 소액 지폐를 여러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세어 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정직한 사람들 중 누구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전할 대상이 없었다. 안내인은 그 작은 지폐 다발을 우리에게 건네면서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빌어 주었다. 커다란 안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우리 가족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주어졌으며, 우리는 또한 영원한 교훈을 배웠다. 그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들의 탄생에 대한 감사를 그분께 드리기 위해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에 따라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과연 있을까? ■



크리스마스 선물

저와 내내는 세 자녀와 함께 1980년 9월 27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파니퀴 지방부에 속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방부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의 일환으로 저는 일곱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각 지부에서 극소수의 회원들만이 타갈로그어로 된 경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그들에게 타갈로그어로 된 *리아호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리아호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파블로 엠 버틀란, 필리핀

여러 문화권 속의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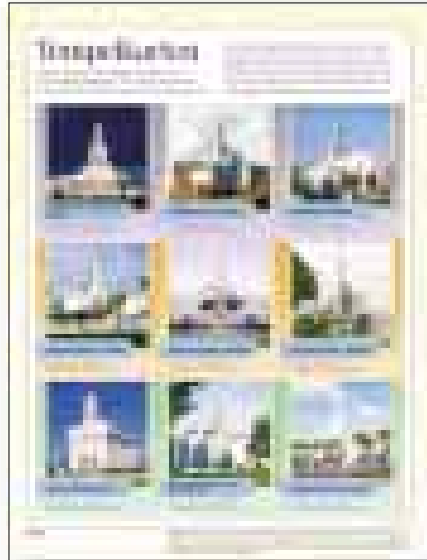
저는 매달 *리아호나* 잡지를 기다립니다. 이 잡지는 참으로 제 생활의 등불입니다. 저는 머나먼 곳까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전해 듣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잡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점을 제게 확인시켜 줍니다.

시리아 마리아 코르테로, 도미니카 공화국

간증을 키워 주는 잡지

매달 *리아호나* 잡지를 볼 수 있는 큰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잡지를 읽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의 경험들과 총관리 직원들의 권고는 제가 일상 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잡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키워 줍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신시아 모랄레스 이달고, 에콰도르



성전 카드를 좋아해요

삼 년 전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성전에 대해 배웠고 성전이 좋았습니다. 당시 겨우 네 살이었던 제 딸 제시카는 처음부터 성전을 보러 여행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시카는 *리아호나*에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성전 카드도 좋아하며 수집합니다. 제 딸을 통해 저는 주의 집에 관한 제 간증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페트라 롱케리히, 독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리아호나* 잡지를 좋아합니다. 이 잡지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삽화는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제게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가장 커다란 행복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참됨을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티안 요세미스 수아레스 로드리게스, 멕시코

기사를 모집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리아호나*를 통해 새로운 회원 또는 저활동 회원에게 권고하거나 도움을 주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리아호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5일까지 (500단어 내외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liahona@ldschurch.org 또는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Using the *Liahona*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와드 및 스테이크 (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투고에 대해 일일이 접수 여부를 알려 드릴 수는 없지만, 출판을 위해 선정된 경험담을 보내 주신 분들께는 통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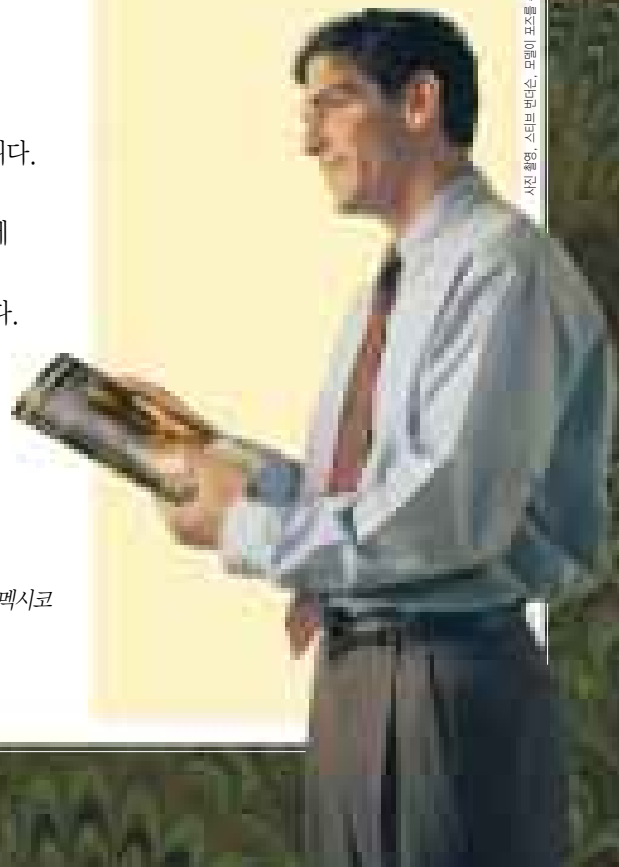


사진 촬영: 스티브 번디슨, 모닝이 프로젝트를 위한

친구들



제일회장단이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빛

구주가 탄생하셨을 때 거룩한 땅에서는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미대륙에서는 한 낮과 한 밤, 그리고 또 한 낮 동안 빛이 있어 그분이 갓 태어난 아기로 지상에 오셨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순종과 선하심, 그리고 사랑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으므로 그분의 생애는 빛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구주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할 때, 이 크리스마스 절기와 다가오는 한 해 내내 그 빛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





배틀리엄 심화 © NOVA DEVELOPMENT, 양치기 심화, 에릭 피 존슨



누가복음 2:7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풀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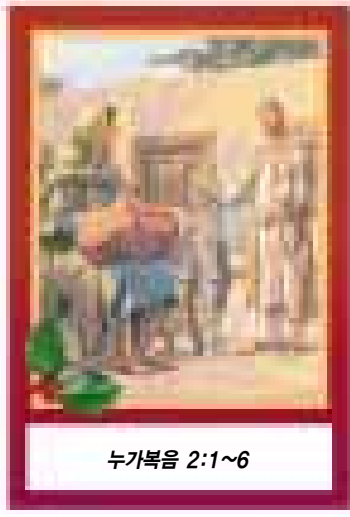
니파이전서 11: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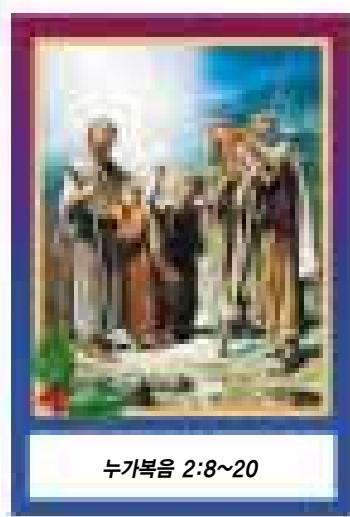
이사야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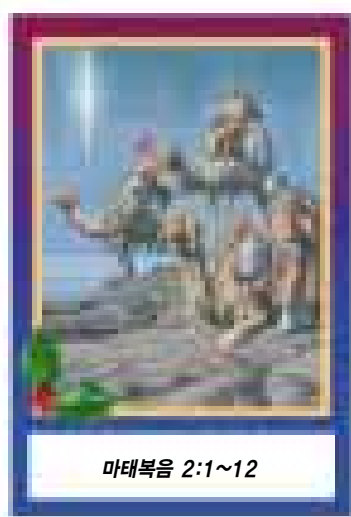
누가복음 1:3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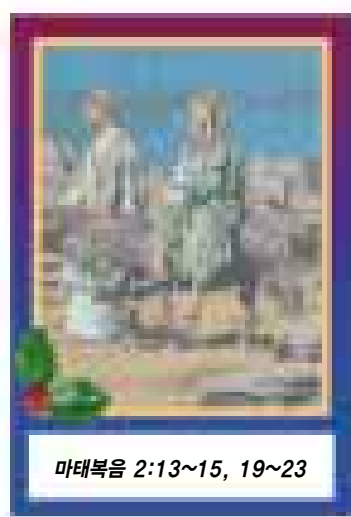
누가복음 2:1~6



누가복음 2: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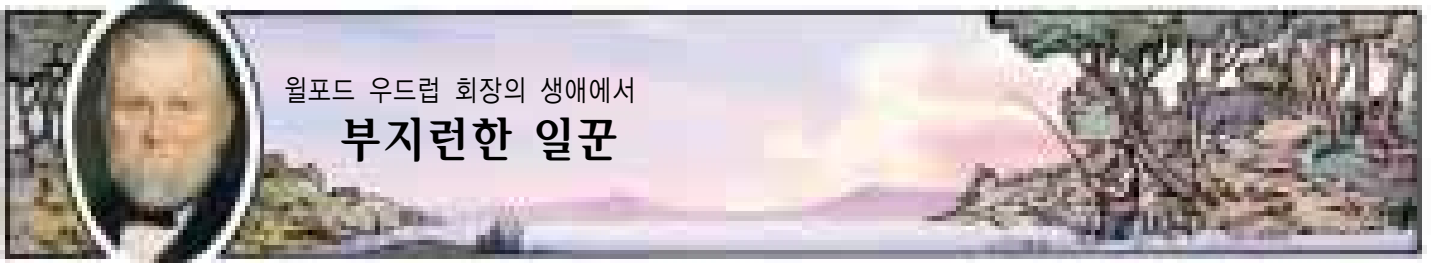
마태복음 2:1~12



마태복음 2:13~15, 19~23



마태복음 24:30, 36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부지런한 일꾼

윌포드 우드럽은 손으로 하는 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가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1855년, 윌포드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밀과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한 후 그는
좀 더 다양한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 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과일 재배를
촉진하기 위한 원예학회
첫 번째 모임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러 해 넘게 그는 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상 중에는 최우수
올타리 및 경작 농장, 최우수
사탕수수, 최우수 스쿼시, 최우수
사탕무, 최우수 강낭콩, 최우수
칸탈루프 멜론, 최우수 사과,
최우수 포도로 받은 상이
있었습니다.

최우수 종합 농산물
상은 윌포드 우드럽 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소들을 키우느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윌포드는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일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자녀나 손자녀들과 함께 바깥 정원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려도 돼요?

물론이지.
이 괄이를 가지고
이 잡초 뽑는 것을
도와 나오.

어느 날, 윌포드는 손자 손녀 중 한 명이 그보다 조금 먼저 채소밭 괄이질을 끝내자 상심했습니다. 90세가 넘었는데도 말이예요!

할아버지,
다 끝냈어요.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내 인생에서 손자 손녀가
괄이질을 나보다
더 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구나.

윌포드 우드럼이 사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에서, 그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럼 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찬송가 책을 가지고,
또는 연단에서 열심히었던 만큼이나
낮을 가지고도 열심히었습니다.

수로를 파든, 설교를
전하든, 또는 역사를 기록하든,
영예로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럼 (2004년), 225, 227쪽; Susan Arrington Madsen, The Lord Needed a Prophet (1990년), 68쪽; Emerson Roy West, Profiles of the Presidents (1974년), 134~135쪽; Preston Nibley,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1974년), 123쪽에서 발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위한 한 주

가 족으로서 이 활동을 활용하여 구주의 탄생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서로에게 상기시켜 준다.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1) 예수의 탄생 장면에서 숫자 1(별)을 찾는다. (2) 열거된 노래를 부른다. (3) 친16쪽에서 숫자1이 붙은 물품을 찾아 내려내어 그 물품과 똑같은 모양의 윤곽에 따라 예수의 탄생 장면에 풀로 붙인다.

다음 5일 밤 동안 반복한다. 열거된 성구를 읽고, 노래를 부른 다음 내려 낸 것을 예수의 탄생 장면에 풀로 붙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7번에 주어진 성구 두 개를 읽은 다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도록 권한다. 열거된 노래 중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

원한다면 이 활동을 허룻밤에 끝낼 수도 있다. 또한 제시된 노래 대신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4. 누가복음 2:8~12

“목자들의 캐럴”

(Children's Songbook, 40쪽;
또는 성도의 빛, 1993년 12월호,
56쪽)


누가복음 2:13~14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찬송가, 128장)

3. 누가복음 2:6~7

“그 어린신 예수” (어린이 노래책, 26~27쪽;
또는 찬송가, 131장)



1. “이야기해 줄까 어리신 예수” (어린이 노래책, 30~31쪽)

2. 누가복음 2:1, 3~5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가, 136장)

6. 마태복음 2:1~2, 11
“동방박사 두렵으로” (찬송가, 126장)

5. 누가복음 2:15~16
“고요한 밤” (찬송가, 134장)
누가복음 2:17~19
“마리아의 자장가” (어린이 노래책, 28~29쪽; 또는 성도의 빛, 1995년 12월호, 친4~5쪽)

7.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수세기 뒤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또한 그들의 간증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교리와 성약 76:22~2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30장)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로마서 12:10)

세 명을 위한 자리

스테이시 에이 힉스
실화

브렌트는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여동생 린지가 바로 뒤쫓았다. “엄마! 브렌트가 외쳤다. “린지가 우리를 자꾸 방해해요!” 브렌트의 제일 친한 친구인 클린트가 놀러와 있었다. 두 남자아이들은 브렌트의 소방차를 갖고 놀면서 블록으로 지은 초고층 빌딩의 불을 끄고 있었다. 브렌트가 말했다. “린지는 우리 일에 항상 끼고 싶어해요. 왜 다른 데 가서 놀지 않죠?” “브렌트, 동생에게 잘해 주렴. 린지는 너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것뿐이야.”라고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 린지는 항상 따라다니려고 해요. 잠깐 다른 데서 놀 수는 없나요?” “린지야, 우리 함께 색칠놀이 할까?” 엄마가 물었다. 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브렌트가 계단을 다시 올라가면서 말했다. 엄마가 그 뒤에서 외쳤다. “잊지 말아라, 브렌트. 클린트와 너는 한 시간 뒤에 크리스마스 발표 연습이 있어.” “알았어요, 엄마.” 브렌트가 대답했다. “엄마, 오빠는 왜 날 싫어해요?” 린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오빠는 물론 널 좋아하지.”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런데 오빠도 가끔은 친구들과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 브렌트는 너를 무척 좋아한단다. 그걸 항상 보여 주지는 않더라도 말이야.” 조금 뒤에 엄마는 크리스마스 발표 연습을 위해 브렌트와



클린트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브렌트는 들뜬 기분이었다. 그는 올해 요셉 역할을 맡았다. 전에는 항상 양이나 목자나 동방 박사 역할이었다. 그것도 좋았지만, 올해가 최고였다. “자, 여관에서의 장면을 연습해 봅시다.”라고 미첼 형제가 말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리에 서세요. 여관 주인들, 시간이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첫 번째 여관으로 가는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무대 위에서 서둘러 자신들의 위치로 움직였다. “저희가 오늘 밤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브렌트가 물었다.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거라서 쉴 곳이 필요해요.” “안됐구려. 방이 없어요.” 여관 주인이 말했다. “이리 와요, 마리아. 다른 곳을 알아봅시다.”라고 브렌트가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여관으로 걸어갔다. “여보세요 주인장, 먼 길을 왔는데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뇨, 만원입니다. 방이 없어요.” 브렌트는 다음 여관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또 다음 여관으로, 그 다음 여관으로 갔다.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방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리아, 미안해요.” 브렌트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봅시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두드렸다. “주인장, 짐을 떠나 멀리 여행해 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마을에 있는 모든 여관에 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만원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며 요셉과 마리아가 천천히 멀어져 갔다. “미안해요, 마리아.” 브렌트가 말을 꺼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려 봐요.” 여관 주인이 뒤에서 외쳤다. “머물 만한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를 따라오시구려.” 여관 주인이 그들을 소와 양과 다른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데리고 갔다. “좋은 곳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여기 있어도 좋소.”

“아주 좋습니다.” 브렌트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 클린트가 브렌트의 집에 또 놀러 왔다. 두 소년은 큰 박스가 침략자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요새라고 상상하며 놀고

있었다. 그러나 린지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으면서 계속 귀찮게 했다.

“린지, 가서 너 혼자 놀면 안 되지? 자리도 없는데 ...” 브렌트는 말을 하다가 도중에 멈췄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들었던 “방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린지. 물론 네 자리도 있지. 세 명을 위한 자리는 언제나 있어.” ●



“어린이들이 기뻐하라.” (교리와 성약 61:36)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퍼트리셔 알 존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즐겼다. 이 사실은 선지자 조셉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자주 보여 주었다. 한번은 두 어린이가 진흙탕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빠져 나오도록 도와준 적도 있었다. 그는 아기들과 같이 놀아 주고 그들을 사랑했다.

선지자는 어린이들과 함께 놀 때면 노는 사람들과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게임을 즐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조셉은 나무에서 몇몇 청소년들과 야구 시합을 했다. 선지자의 형인 하이럼이 그를 보았다. 하이럼은 동생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동생의 결점을 찾을

기회가 생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이럼은 조셉이 젊은이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시합이 끝나자 하이럼은 조셉에게 다가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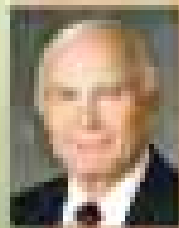
그런 행동은 주의 선지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을 인도하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선지자는 하이럼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이럼이 그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고, 형을 믿었으며 또한 형의 조언에 자주 귀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에 조셉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형에게 단순히 대답했다. “하이럼 형, 이런 해가 되지 않는 운동으로 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제게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제게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들 중에 언젠가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젊은이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선지자 조셉이 옳았다. 그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나무에 있던 두 젊은이가 선지자의 적과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다. 그 젊은이들은 선지자를 위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으로써 그들이 선지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조셉 스미스는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들 또한 선지자 조셉을 사랑했다. ●

주

1. 로렌조 스노우, “Reminiscence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Deseret Semi-Weekly News*, 1899년 12월 23일, 1쪽.



“조셉을 잘 아는 사람들은 … 그를 사랑했고 또 그를 선지자로 지지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심이사도 정원희,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73쪽.



“네게 한 그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3:5)

약속을 기억함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경전은 제게 주어진
커다란 약속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콜 롬비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는 선교부 내에 있는 한 도시로 가기 위해 목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집전을 하며 하루를 보냈으며,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괴로웠습니다.

선교사들과 지역 대회를 마친 후,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회 지도자 및 회원들과 함께 지방부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조한 교회 참석률, 변변치 못한 준비, 또 그 밖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나흘 간의 경험들은 저를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손에 경전을 들고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넘겨 가며 읽었습니다. 곧이어 저는 교리와 성약 3편에 있는 몇몇 구절에 이르렀는데 이 구절들은 이제 절대로 예전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 (1절)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여행 중에 느꼈던 그 도시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일이 “좌절”되고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2절) 일부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굽은 길로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5절에서 보물을 찾았으며, 그것은 제가

10세 때 친형제들인 마빈(왼쪽)과 리처드(가운데)와 함께.



12세.



19세,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경전에서 찾은 가장 멋진 식견 중 하나였습니다. “보라, 이것들이 네게 맡겨져 왔도다.”

저는 잠시 멈추어 제게 맡겨진 것들, 즉 제 아내와 여섯 자녀들, 100명의 선교사, 6,000명의 회원들, 1,300~1,400만 명의 비회원들, 선교부, 여러 지방부와 지부들, 예산, 건물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5절)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힘과 통찰력과 위안과 깊은 느낌과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까! 경전에서 그날의 그 네 단어처럼 제게 그토록 큰 영향을 주었던 것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흘 동안 오직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커다란 약속을 한 번도 멈추어 기억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약속이었지?”라고 자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은 제 축복문에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축복문을 가지고 탔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었는지! 그런 다음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성별되었을 때 주어진 특별한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전에 관한 약속에 대해, 그리고 경전에 있는 약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영은 높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고무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던 그때를 돌이켜 볼 때, 높은 곳에서 제게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제 인생은 달라졌고, 그 모두가 “그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는 단순한 네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



젠슨 장로와 자매 (가운데), 자녀 및 손자 손녀들과 함께.





2.

5.

1.

6.

4.

3.

활동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친8~9쪽을 참조한다.

신화, 달린 마차

사진 촬영: 존 루크



템플스퀘어에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세계 전역의 회원들과 군인들에게 재방송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공연하는 중이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8월에 크리스마스 경축

애비 올슨, 교회 잡지

2006년 8월 19일,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나뭇가지, 화환, 조명, 그리고 포인세티아가 무대를 장식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음악과 애국적 음악이 울려 퍼졌다. 템플스퀘어에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국제 복지 재단인 Feed the Children [어린이를 먹이러] 및 특별 출연진과 함께 군인들을 위해 12월에 재방송될 크리스마스 감사 콘서트를 공연했다.

현대 기독교 음악에서 수상 경력이 가장 많은 여성 성악가인 샌디 패티, 초청 사회자인 로리앤 크룩, The Nashville Network [내쉬빌 네트워크]의 TV 방송인이자 일일 라디오 프로그램 사회자인 찰리 체이스와 The Band of the Air Force Reserve [공군 예비역 밴드]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에 합류했다.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콘서

트에 참석했다.

무더운 8월 저녁, 수백 명의 관객이 즐긴 전통 캐럴 중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그리고 “주 믿는 신도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의 크리스마스 음악으로는 “The Most Wonderful Christmas Waltz”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왈츠], “I Saw Three Ships” [나는 배 세 척을 보았네], “Sleigh Ride” [썰매타기] 등이 있었다.

로리앤 크룩은 더운 여름철에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크리스마스 절기에 방송될 때 그들이 느끼는 온정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전역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연주된 많은 곡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이 대립으로 가득찬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주기 위해 문화와 배경과 전통을 초월하여 퍼진다는 것을 다시 말해



템플스퀘어에서 오케스트라와 미 공군 밴드가 채드 에이 셸리의 지휘 하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

콘서트가 끝나자 연주자들에게 기립 박수가 주어졌고, 관객들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가 앙코르로 “전승기”를 연주할 때까지 다시 앉을 줄을 몰랐다.

The Armed Forces Radio and Television Service (AFRTS) [국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은 연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오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그 콘서트를 라디오에서 60분동안 방송할 것이다. 복지 재단 Feed the Children[어린이를 먹이러]

은 추수 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콘서트를 TV를 통해 30분과 60분 프



현대 기독교 음악 성악가인 샌디 패티가 물론 태버네를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고 있다.

로그로 방영할 것이다. ■

힝클리 회장, BYU 건물 기공식에서 96번째 생일 기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삼과 흠으로 자신의 96번째 생일 축하 모임을 시작했다.

수백 명의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생, 교직원, 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힝클리 회장은 프로보에 있는 이 대학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니게 될 7,432평방 미터 건물의 건축을 개시하기 위해 손에 삼을 들고 흠을 떠 올렸다.

힝클리 회장은 2006년 6월 23일, 새로 지은 고든 비 힝클리 졸업생 및 방문자 센터의 기공식 축하 모임에서 하객들에게 “여러분은 오늘 하시는 일을 통해 제게 명예와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하객들에게 감사를 나타냈고, 2003년 사회 복지 사업 및 사회학과의 한 교수직이 그의 아내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의 이름을 지니게 됨으로써 2004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 또한 BYU에서 예우를 받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자리를 저의 건물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겠지요.”라고 그는 말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그리고 힝클리 회장의 아들인 클라크 힝클리 형제 또한 기공식

에서 말씀을 전했다. 가족들, 힝클리 회장의 제일회장단 보좌들, BYU 이사회 임원들,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기증자들이 기공식의 일환으로 첫 삽을 뜰 때 힝클리 회장과 함께 참여했다. 그 후 힝클리 회장은 자신의 도구함에서 가져와 기공식에서 사용한 삽을 기증했다. 기공식 후 즉시 건축이 시작되었다.

BYU 이사회는 2005년 10월, 이 신규 센터의 부지 조성을 승인했으며, BYU

의 세실 오 새뮤얼슨 학장은 그 다음 달에 신규 건물에 대해 발표했다. 건물을 위한 기금은 모두 사적 기부금을 통해 조성되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는 교회 회장들의 이름을 딴 건물이 그 외에 여덟 채 있다.

“이 새 건물은 건물 이름의 소유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지어진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저는 새뮤얼슨 형제가 제가 이미 받은 죽은 사람이므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고든 비 힝클리 졸업생 및 방문자 센터는 2007년 가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힝클리 회장의 이름을 지닌 또 하나의 건물이 2002년 10월 BYU 아이다호에서 헌납되었다.

그 건물은 BYU의 입구이자 졸업생을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힝클리 회장과 그의 삶을 기리는 곳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브리검 영 대학에서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진 건물의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다.

BYU 졸업생 웹사이트는 “교육, 사회 복지 활동 및 국제적인 친선 도모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의 노력 덕분에 그의 이름은 이 건물의 주요 목적을 환기시켜 준다.”라고 밝힌다. 그는 교회의 “특명 대사”이며 “그의 오랜 삶은 관대함과 이해심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기공식 후에는 가족, 초대 하객, 그리고 대학 지도자들이 힝클리 회장에게 사적 오찬을 접대했다. 힝클리 회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찬사를 표했으며, 새뮤얼슨 학장은 그의 이름을 지닐 새 건물을 상징하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 한 장을 그에게 선물했다.

힝클리 회장은 1995년 이래 교회의 제15대 회장으로 봉사해 왔다. 그 이전에, 그는 제일회장단 보좌로 14년,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20년을 봉사했다. 힝클리 회장은 수많은 성전을 헌납하고

교회 회원들을 만나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 회원 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250만이 넘는다. 그는 여러 명의 주요 뉴스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한 바 있다.

CBS 방송 기자인 마이크 윌러스는 작년 힝클리 회장의 95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Celebration of Life [생의 축전] 프로그램에서 그에게 찬사를 표했다.

윌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건설자로서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청소년과 선교사들의 건설자 ... 인격과 신앙의 건설자, 그리고 이 모두로 인해 사람들의 건설자였습니다. ... 그 속도로 인해 피곤할 만함에도 그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 줌으로써 그가 사랑하는 조직을 세우도록 돕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만 했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여전히 그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라고 엘리어나 시에라 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여행을 하여 그곳에서 봉사하기 위해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희생하며 돈을 저축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척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며, 성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시에라 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자 수고하신 힝클리 회장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회원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과테말라 성전에서 온두라스 회원들의 참석률은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 성전이 있게 됨으로써 참석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라고 시에라 회장은 말했다.

중미 지역에서 과테말라 성전 이외의 성전은 코스타리카 산호세(2000년)와 파나마 파나마시티(건축 중)에 있다. 이로써 온두라스 성전은 중미의 4번째 성전이 된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축 중이거나, 제일회장단 서신을 통해 공고된 성전 중 교회의 134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온두라스의 교회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와 중미 선교부의 고든 엠 롬니 회장을 통해 복음이 처음 소개되었던 1952년 이래 성장해 왔다. 그들은 호텔 웨이터에게 물몬경을 한 권 주었으며 그는 이후 침례를 받았다. 한 달 후에 선교사들이 온두라스에 들어왔다. 첫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1953년 3월에 테구시갈파에서 첫 집회

중미 성도들, 온두라스 성전 발표로 기뻐하다

테 구시갈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공고하는 2006년 6월 9일자 제일회장단 서신이 온두라스 회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은 나라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회원들은 무척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커다란 의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개방을 위해 자신들과 회원들을 준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온두라스 공보 책임자이자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선교부 회장단 제1보좌인 호르헤 시에라 형제가 말했다.

온두라스의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테구시갈파의 인구는 160만명이 넘는다. 새로운 성전은 그중에서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사는 168,000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은 테구시갈파에서 약 34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1984년에 헌납된) 과테말라 시 과테말라 성전이다.

그 지역의 성도들은 시간과 돈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로 가서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여행해야



최근 발표된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이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파나마에서 건축 중인 중미 성전에 합류하게 된다.

가 조직되었다. 현재 온두라스에는 3개의 선교부, 즉 코마야구엘라, 산 페드로 술라, 그리고 테구시갈파 선교부가 있다.

2005년 12월 추정치에 따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지난 5년 동안 중미에서 교회 회원 수가 가장 급성장한 나라들이다. 니카라과에서 교회 회원 수는 약 50퍼센트, 온두라스에서는 약 16퍼센트 증가했다.

시에라 회장은 성전이 일반 공개를 통해, 또한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와 지도자들이 저활동 회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대화의 주제가 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

로 교회의 성장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온두라스의 교회 회원 수는 약 6,300명이었다. 오늘날, 회원 수는 116,000명이 넘는다. 1989년 니카라과 마나구아 선교부 조직 당시에 니카라과의 교회 회원 수는 3,453명이었다. 오늘날 니카라과 성도들의 수는 52,000명을 넘어섰다.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니카라과의 성도들에게 성전은 하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

후기 성도들, 중동에 원조를 보내다

교회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과 헤즈볼라 세력 사이의 충

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에 응

했다.

유엔 담당자들은 그 싸움으로 추방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약 800,000명의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도움을 줄 만큼의 물품을 요청했다.

교회는 의약품, 분유, 유아용 혼합 분유, 비누 및 위생 용구를 기증했다. 이러한 물품은 Islamic Relief Worldwide[이슬람교 세계 구제 기구]에 의해 피해 지역에 전해졌다. 비행기 한 대 분의 물품이 2006년 8월 1일 화요일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며칠 후 레바논에 도착했다. Islamic Relief Worldwide와 레바논 개발 및 교육 기관인 Hariri Foundation[하리리 재단] 대표들이 분배를 감독했다.

교회는 국제 적십자사의 이스라엘 지부인 Magen David Admon의 재정적 지원 요청에도 응했다. 그 기부금은 Magen David Admon의 헌혈 프로그램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구급차 출동을 지원하고 또한 각 가족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도록 이스라엘 하피아 시에 주어졌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종교, 인종, 민족, 또는 정치적 신조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수행했으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는 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5쪽)

발이 아닌 신앙으로 회원이 “건다”

애비 올슨, 교회 잡지

11살 어느 날, 빅터 페나피엘은 콜롬비아의 집 근처 기차역에서 놀고 있었다. 학교 수업은 끝났고, 그는 기차에 뛰어오르기로 마음먹었다. 기관사들이 그에게 내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는 다시 뛰어올랐다. 그들은 두 번 더 그를 보고 내리라고 했다. 그것은 그에게 기차에서 내려오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기차가 덜커덩거리며 출발했을 때 그는 균형을 잃었으며, 기차 아래로 떨어져 두 다리가 기차에 깔렸다. 심한 고통 때문에 그는 반사적으로 왼팔을 아래로 움직였다. 빅터는 엉덩이 밑 양쪽 다리와 팔꿈치 바로 밑의 팔을 잃었다.

더 먼 곳의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면 그는 살아서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그는 수혈이 필요했지만 혈액이 부족했다. 그들은 가까운 해군 기지에 피를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한 명을 요청했는데, 열한 명이 왔습니다.”라고 빅터는 회상했다. 그런데 열한 명의 혈액 기증자 모두가 그와 같은 혈액형이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그를 치료했고, 세 개의 수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빅터는 말했다.

빅터는 휠체어를 탄 채 그의 삶을 살았지만, 장애가 자신의 신앙을 제약하지 못



사진 촬영: 애비 올슨

소년 시절 기차 사고로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잃은 빅터 페나피엘은 나중에 에콰도르 강을 횡단하는 수영 대회 이후 조국 동포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도록 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도 더 지난 후, 몇 년 전 시작된 또 다른 일련의 작은 기적들로 인해 그는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첫 걸음

다시 걷는 길을 향한 첫 걸음은 사실 물 속에서 이루어졌다.

23살 때, 빅터 페나피엘은 수영장 구석에 꼭 매달려 다른 사람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의 친구인 알투로 에스피노사는 그가 수영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빅터는 물을 무척 두려워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한쪽 팔밖에 없는 지금, 수영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었다. 빅터가 일년 동안 두려움과 싸운 후, 알투로는 빅터를 수영장 가운데로 데리고 갔고, 빅터가 배우는 동안 입었던 구멍 조끼를 벗게 했다.

그를 그곳에 두고 가며 알투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했다.

빅터는 그 상황을 극복했으며, 그 도전은 자신이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 후로, 빅터는 구멍 조끼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수영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약 10년 후, 빅터는 폭이 약 5킬로미터 되는 에콰도르의 구아야스 강을 횡단하는 수영 대회에 참가했다. 물살이 썰며, 물은 더럽고 차가웠다. 그는 약 120명의 수영 선수들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장애인 선수였다고 말했다. 많은 경쟁자들이 경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그는 강을 끝까지 횡단했다. 그는 같은 연령 그룹에서 3번째, 전체로는 15번째로 들어왔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력

빅터와 그의 이야기는 그의 고향인 에콰도르 구아야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삶의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행복의 일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돕는 데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아내인 메르세데스 자매는 그들이 에콰도르 키토에서 TV에 출연하도록 초대받은 적이 한 번 있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그들을 세우고는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아들은 다리를 잃었는데, 빅터의 이야기가 그에게 의욕을 가져다주었다. 그 소년은 “그분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할 수 없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빅터는 결혼 후 수 년동안 자신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도운 아내 메르세데스에게 공적을 돌린다.

그는 언젠가 구도자를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과 동행해 갔다. “그분은 여러분 교회의 회원입니까?”라고 그 구도자는 빅터를 보고 물었다.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구도자는 “그분이 회원이라면, 당장 제게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의 모범,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그의 방식 때문이에요.”라고 에콰도르의 교회 고용 자원 센터에서 남편인 클라인 룡 형제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한 앤 룡 자매가 말했다.

실업자들이 센터에 찾아왔고, 빅터에 관한 녹화된 뉴스를 본 후 그들은 종종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얻도록 자극을 받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생거리가 없어요.’”라고 룡 자매는 회상했다.

빅터의 차례인가?

선교 사업의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빅터를 아직 만나 보지 못한 룡 부부는 그를 찾아서 그가 준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도운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귀환 후, 그들은 빅터가 인공 다리를 받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룡 부부는 인공 수족을 기꺼이 기증하고자 하는 미국의 한 회사를 찾았으나, 페나피엘 부부가 2006년 6월 유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대화 착오로 인해 인공 다리가 아닌 인공 발이 기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빅터와 메르세데스

페나피엘은 7월 24일까지 인공 다리를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다.

유타 주의 여러 매체 기관이 빅터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고, 기금 관리 조직이 설립되었다. 크고 작은 기부금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이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라고 빅터가 말했다.

사건의 전환

기부금을 통해 인공 다리를 위한 충분한 돈이 마련되었다. 빅터는 다시 “걷고, 걷고, 또 걷는” 능력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2006년 7월 13일, 빅터는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30년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인공 다리는 걷다가 힘든 고통을 일으켰다. 인공 다리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러한 고통은 만약 그가 계속해서 인공 다리를 사용한다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의사들이 외과적으로는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권유한 신경상의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빅터는 자신의 새로운 다리를 포기해야

만 하는 것이 슬펐으나, 그는 특유의 태도로 의사들이 신경상의 문제를 발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빅터는 자신의 인공 다리가 아이티 사람들에게 기증될 수 있도록 “걷고, 걷고, 또 걷겠다.”는 그의 꿈과 함께 그 다리를 제공해 준 회사에 기증했다.

빅터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그 인공 다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뿐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말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터는 그 대신 전동 휠체어를 받았다.

“저는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는 그 일이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비록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분이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신경상의 문제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알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알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나 손, 팔 또는 다리 하나를 잃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명이 있는 한 행복해질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빅터는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

2006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

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까”를 참조한다.

1. 복음 그림 패킷 113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와 201 (예수 강탄)을 보여 준다. 두 그림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해 준다. 첫 번째 그림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임을 설명한다. 이사야는 구주께서 실제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시현을 통해 구주의 탄생을 보았으나, 구주를 예수라 부르지 않았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칭호를 사용했다.

다음 단어들의 글자를 뒤섞어 놓은 종이를 보여 준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이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그 칭호가 몇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글자로 시작되는지 말해 주면서 글자를 뒤섞어 놓은 종이를 하나씩 준다. 퍼즐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몇 초마다 힌트를 준다. 아이들이 그 퍼즐을 풀 때, 나누어 주었던 종이 뒤에 정확한 단어를 적는다. 유성 펜에 깃털을 붙여서 아이들에게 그림 속의 이사야처럼 “깃털 펜”으로 쓰게 할 수도 있다. 다섯 개의 칭호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림에 있는 아이를 위해 사용했던 칭호들이다. 아이들에게 이사야서 9:6을 찾아서 나온 순서대로 종이를 놓게 한다. 각 단

어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칭호인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구주에 관한 성탄절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오셨음을 간증한다.

2. 어린이들에게 창세기 1:16을 읽게 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큰 빛”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태양) 커다란 노란색 공이나 태양의 그림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만약 해가 쬐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물어본다.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 만약 선지자가 어느 날 해가 지고도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물어본다. 그들은 덜 무서워하겠는가? 그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경전을 통해 그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임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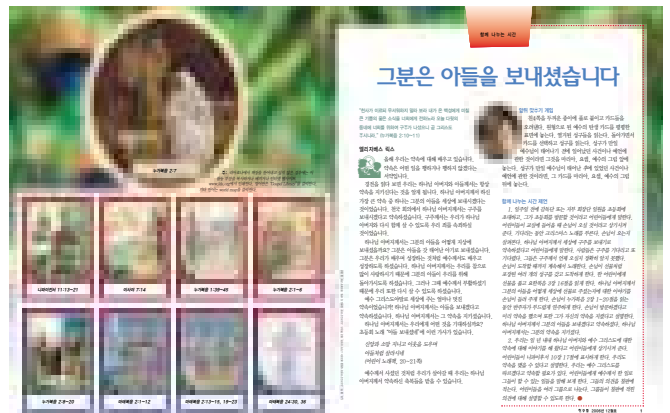
비록 예수께서는 필멸의 몸을 가지셨을 때 미대륙에 살지 않으셨지만,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분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말해 준다. 이사야서 9:6과 니파이후서 19:6을 살펴본다.

예언이 기록된 경전에서 구주에 대해 간증한 몰몬경의 선지자들을 짝짓는 게임을 한다.(니파이—니 파 이 후 서 25:19; 베냐민 왕—모사야서 3:5; 아비아다아—모사야서 15:1; 엘마—엘마서 7:10; 사무

엘—힐라맨서 14:2) 복음 그림 패킷 또는 초등회 4 그림 패킷에서 이 선지자들의 사진을 게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칠판 위에 각 선지자의 이름을 쓴다. 어린이들에게 경전 구절 중 하나를 찾도록 몇 분의 시간을 준다. 어린이들에게 예언을 읽고 해당되는 선지자와 짝짓게 한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제언: 위에서 언급된 다섯 명의 선지자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 다섯 명의 어린이들에게 언급된 선지자들을 묘사해 주는 간단한 의상을 입게 한다. 경전에 나온 여러 가지 예언을 읽는다. 각각의 아이가 어느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힐라맨서 14:3~4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그리스도 탄생의 표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태양이 비치고 있지 않았는데도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탄생에 대한 적절한 표적이었음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간증한다. ■



그녀의 ‘젊은’ 신앙

부산 서 지방부 괴정 지부 고혜자 자매

신앙을 꽃에 비유하자면 고혜자 자매의 신앙은 막 피어나기 시작한 수줍은 수선화일 것이다. 맑은 공기와 물을 가득 받아들이며 싱싱하게 성장하는 꽃. 고혜자 자매는 올해 3월 5일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66세의 고 자매에게 성장이란 단어는 특별하다. 인생의 황혼기,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준비할 나이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고혜자 자매는 자기 자신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라고 표현한다.

고 자매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구 지부(현재 수정와드 건물)가 있던 부산의 수정동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고혜자 자매는 마당과 뜰에 초목이 우거진 동구 지부 건물을 보며 어떤 교회인지 늘 궁금해 했었다. 하지만 고 자매는 교회 안으로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고 그렇게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2001년, 고 자매는 선교사가 나눠 준 ‘영어 회화’ 전단을 받게 된다. 평소에도 영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다 늙어서 주책이라 할까봐.” 배움의 기회를 미루고 있던 고 자매에게 그 전단은 새로운 기회였다. “처음엔 교회라는 인식을 못했어요. 십자가도 없는데다가 1층에서만 영어 회화를 했기에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죠.” 그렇게 또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고 자매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학생들을 영어 회화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매 선교사들을 따라다녀 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1층에서만 머물렀다. 선교사들은 문자 그대로 ‘장수 반원’인 고 자매를 침례의 물가로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일요일 아침 8시 반이면 전화를 해서 성찬식 참석 권유를 했던 비운 장로의 노력은 고 자매를 감동시켰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정성을 쏟는 걸 보면 이 교회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 자매는 영어 회화를 마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옛날 가졌던 궁금증이 다시 떠오르는 걸 느끼며 올라간 2층에서 고 자매는 예배당을 보게 되었다. 그곳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용함과 편안함이 있



고혜자 자매와 그녀의 제자들. 왼쪽부터 헤빈이와 은영이.

었다. 그 후 고혜자 자매의 마음속에는 침례에 대한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그 싹은 3월 5일 따뜻한 봄날에 대신 지부 회원들의 축복과 선교사들의 축하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물론 침례를 받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 쉴 수 있는 날이 딱 일요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찍 일어

나야 한다는 게 ...”

하지만 고 자매는 이겨 냈다. 쌓여만 가는 세월의 무게로 그녀의 육체는 피로하고 힘들었지만 막 피어나기 시작한 신앙과 간증은 그 모든 것을 이겨 내게 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안식일 아침이 즐거워졌다. “회원들이 직접 말씀을 하고 간증을 나누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참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즐거워졌고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지요.”

고혜자 자매는 벌써 3명의 어린이들을 개종시켰다. 최근에 침례 받은 홍현빈, 도기영, 도은영 자매 모두가 고 자매의 제자들이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고 자매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소개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고 자매는 개종한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며 새삼 교회의 참됨을 느꼈다. “66살의 저와 10살 남짓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큰 축복이지요.”

고 자매는 이제 물문경 읽기에 여념이 없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궁금증만 품고 보내 버린 지난 50년의 세월이 아쉬워 잠시도 쉴 수 없다. “저는 이제 강물에 발목만 담근 상태입니다. 어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환하게 웃는 고혜자 자매의 주름진 얼굴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





초창기 대전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 부부와 선교사들

대전 선교부, 시작되다

대전 선교부는 한국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선교부로 1986년 7월 1일에 조직되었다. 당시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의 싹이 움트기 시작할 때였다. 초대 대전 선교부 회장인 홍무광 형제를 필두로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전라도의 전 지역을 다니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햇살을 비추었다. 그 햇살 속에서 수많은 싹들이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그리고 지금, 대전 선교부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가장 큰 선교부가 되었다.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등 네 개의 스테이크와 홍성과 순천 두 개의 지방부에서 91명의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다.

정(情)이 가득한 곳, 대전 선교부에 가다

선교사들, 길을 걷다

넴로우 대전 선교부 회장은 대전 선교부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기사로 만들기에는) 지루한 곳”이라는 농담을 던진다.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다. 한참을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이 없다. 한국에 있는 네 개의 선교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는 점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이동 거리가 길고 특히 두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소위 말하는 산간오지 구석구석까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점도, 넴로우 회장이 매달 5,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며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돌러한다는 점도 대전 선교부에서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넴로우 회장은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우리는 순종과 근면을 요구하고 있는 성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기꺼이 이동하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오히려 다른 것을 특별함의 예로 든다. 그것은 바로 대전 선교부 지역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다는 ‘정(情)’ 페디스 장로는 순천 지방부에서 봉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이라는 말에 힘을 준다. “보통 선교사들이 회원 가정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나누거나 깜짝 선물을 주곤 하는데 이곳 회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교사 숙소 앞에 음식을 두고 가거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붙여 놓고 가곤 합니다. 전 그때마다 ‘정’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공기가 흘러 바람이 되듯이 대전 선교부에서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마음, 바로 정을 통해 선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자 그대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대전 선교부의 목표는 무엇일까? 넴로우 회장과 선교사들은 여러 답변을 한다. 시온의 선교부를 만드는 것,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 그중에서도 유독 한 가지 대답이 귀에 들어온다. “진정한 개종을 하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진정한 개종이란 무엇일까? 넴로우 회장은 “침례는 시작일 뿐”이라며 입을 연다. “후일이 가까워오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언뜻 선교 사업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는 진정한 개종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집으로



홍성의 영어 회화반. 선교사들의 열렬한 지지자인 이들은 열성적인 반원들이다.

가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한 대리 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선교사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뎀로우 회장이 말하는 규칙 속에는 좀 더 여러 의미가 들어 있다. “선교 사업을 할 때, 회원으로부터 소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개는 바로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받기 위해서) ‘순수한’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 사업에 집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순수한 선교사’야말로 가까이 하나님의 소개를 받아 진정한 개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전 선교부에 다른 선교부와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그대로를 규칙으로 적용할 뿐이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규칙 안에서 축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대전 선교부는 뚜렷한 목표 속에서, 순종을 통해 얻는 주님의 신뢰 속에서 그렇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지방부

대전 선교부에는 홍성과 순천 두 개의 지방부가 있다. 두 곳엔 작은 지부들이 모여 있다. 지역은 작지만 그곳의 간증과 신앙은 결코 작지 않다. 홍성과 순천 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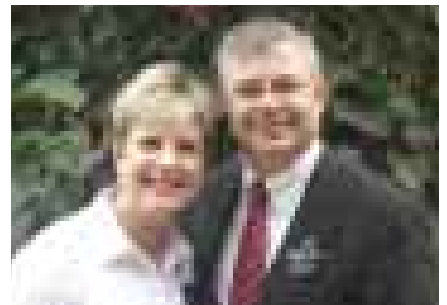
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이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두 곳의 지역 중 홍성을 다녀왔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변화가의 끝까지 걷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을 알고 있다. 홍성에서 오랫동안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오화자 씨는 선교사가 지나가자 얼른 굴 한 소쿠리를 담아 준다. “아들 같은 선교사들에게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오화자 씨는 쑥스러운 듯 말끝을 흐린다. 그리고 또 감 두 개를 집어 선교사들의 손에 쥐어 준다.

홍성에는 화요일 11시마다 홍성도서관에서 영어 회화가 열린다. 1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이재순씨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젊은이들이지만 겸손하고 도덕적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유일한 남자 반원인 최경구씨는 92년부터 홍성 지역의 영어 회화에 참석한 장수 반원으로 선교사가 아플 때 약을 사 주는 등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다. 영어 회화를 통해 자녀와 함께 개종한 한현희 자매는 “선교사들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싶어 개종을 결심했다.

아머 자매와 금선자 자매는 올해 4월부터 홍성 지역에서 봉사 중인 자매 선교사다. 이 둘은 영어 회화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홍성의 전 지역을 다니며 선교 사업을 한다. “차비가 많이 드는 건 물론이고

차도 들어가지 않는 시골 길을 한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금선자 자매는 선교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한다. 홍성 지역에서 봉사하는 다른 선교사들도 비슷한 대답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이 훌륭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주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홍성의 선교사들은 침례 받은 개종자들이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못내 가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행복하다.”고 외친다. 20대 중반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느끼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아머 자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에(최정근 장로), 홍성 회원들의 강한 신앙을 볼 수 있기에(한순형 장로)”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다. 하지만 바로 이 소박한 행복이 있기에 오늘도 대전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주님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고 있다.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일은 제 삶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와 자매가 함께 선교부를 여행할 때 이 땅의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선량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보여준 충실함과 의로움에 큰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선에 대한 커다란 힘과 행복의 원천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응답입니다.”
- 노먼 알 뎀로우, 대전 선교부 회장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늘 예수님께 받기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게요. 전국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거 다 알아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김민서, 여, 6살, "예수님, 동생 빨리 주세요."

여원하신 하나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서진이에요. 제가 지상에 태어난 것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가지 여쭙 볼게 있는데요, 복천년이 언제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진짜면 연락을 주세요. 052-287-XXXX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진, 남, 11살,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성경과 물문경 모두 읽었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기도도 하고, 식사 기도도 하고 무언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합니다. 비록 아침 기도는 안 할때도 많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힘든 것은 사라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 넘어져서 입술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도 모두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 내일

입술을 꿰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할머니가 잘 아시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오늘 안에 꿰매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병원 문을 닫았지만 병원을 열고 제 입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힘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는 신앙으로 가는 맨 처음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정다솔, 여, 13살, "제주도에서 살아요."

저는 엄마가 "우리 아들"하며 안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윤석권, 남, 10살, "초등학교가 재밌어요."

가족들과 산에 올라갔는데 다람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아름다운 동물을 창조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정현조, 남, 8살, "정의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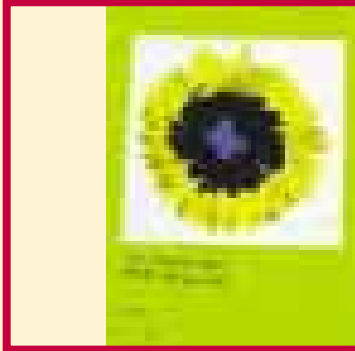
몇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합기도 학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찾게 되었고, 겨우 합기도 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간구라도 들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김인현, 남, 13살, "이젠 띠를 안 얹어 버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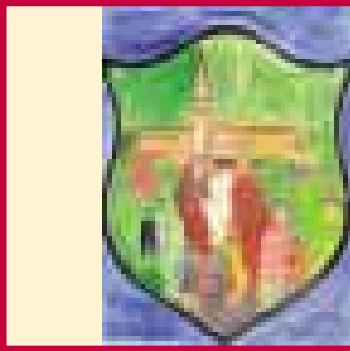
예수님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열매도 주고 잎도 주고 나중에는 줄기까지 주는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벽입니다. 내가 힘들 땐 기대어 쉬게 해 주는 예수님은 든든한 벽입니다. 예수님은 해바라기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일편단심 해바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는 예수님은 그림자 같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부를 때 따스한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양유선, 여, 9살, "시 쓰는 걸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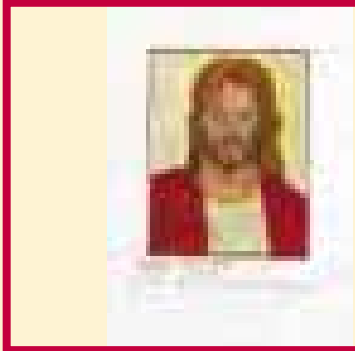
강규이, 여, 12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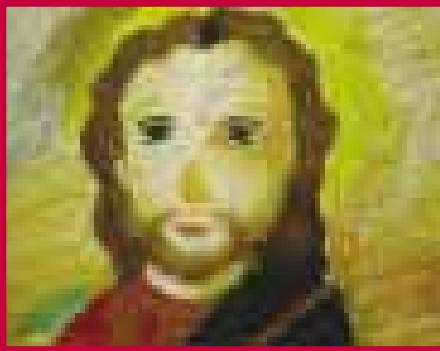
남나래, 여, 10살



배소희, 여, 12살



송진호, 남, 10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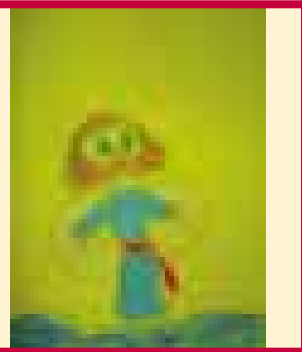
양한음, 여, 9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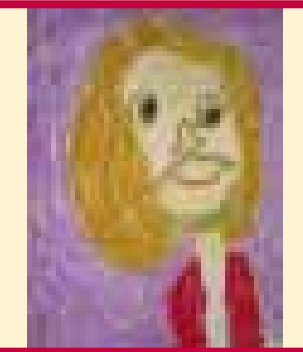
전규은, 여, 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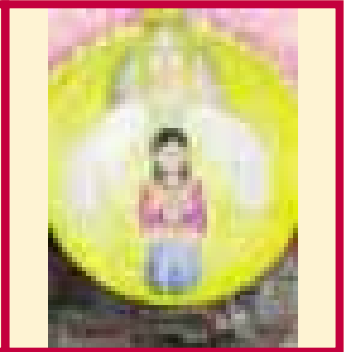
양한슬, 여, 7살



양한지, 여, 5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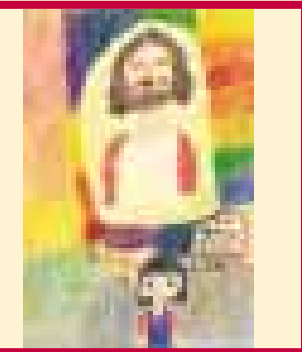
유시현, 남, 5살



이사람, 여, 11살



이우람, 남, 7살



조성은, 여, 10살



최승혁, 남, 13살



캐를, 여, 10살

가서 행하겠나이다

부름

성전 회장으로 부름 받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전종철 성전 회장은 “어느 부름을 막론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성전 사무장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성전 회장단 부부의 희생과 봉사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부름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종철 회장은 48년 전 처음으로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 비단 전 회장뿐만이 아니다. “부름과 봉사가 곧 생의 십일조”라고 간증하는 정운 회장과 성전 회장단이라는 부름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천낙서 회장 모두 모든 부름에 거절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특히 천낙서 회장 부부는 내년 4월에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전 회장단 부름을 받은 후, 천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슴없이”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 옛날 척박한 한국 땅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한국 서울 성전의 새로운 성전 회장으로 부름 받은 전종철 회장 그리고 정운 회장과 천낙서 회장은 모두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 호흡한 이들이다. 성전 회장단의 자매들도 마찬가지다. 성전 메이트론으로 봉사하게 된 차영심 자매와 메이트론 보조로 봉사하게 된 김영숙 자매 그리고 천인덕 자매 모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 50년을 넘나드는 이들의 신앙과 간증은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순수하다. 그래서일까?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는 지난 11월 7일, 새로운 성전 회장단과의 인터뷰 자리는 두꺼운 옷이 무색하게 새봄처럼 따뜻하고 정겨웠다. 새로운 성전 회장단 부부. 왼쪽부터 정운 회장, 김영숙 자매, 전종철 회장, 차영심 자매, 천낙서 회장, 천인덕 자매.

성전 회장단의 아내들

인터뷰 도중 전종철 회장의 농담 한 마디가 좌중을 즐겁게 했다. “몬슨 회장님이 94년 선교부 회장 부부를 위한 훈련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을 어떻게 부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장 될 형제의 아내를 보고 그분이 좋은 분으로 판단되면 그 형제를 선교부 회장으로 부릅니다.”” 전종철 회장의 말에 모두들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세 명의 성전 회장단이 주님의 부름을 수행하고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인들의 역할이 컸다. 천인덕 자매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소감을 말하면

서 눈물부터 글썽였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늘 한국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운 형제의 부인인 김영숙 자매는 메이트론 보조 부름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부름이 나를 보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차영심 자매는 “(메이트론 부름이야말로) 형제인 전종철 회장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힘을 모아 성전에 오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전을 찾는 모든 회원들에게

“성전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켰을 때의 결과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 성전을 가장 높은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전종철 성전 회장 -

“주님의 집인 성전은 이 지상에 서 가장 편안한 곳이며 주님의 사업

은 항상 발전하고 번성합니다. 다 함께 이곳에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 정운 제1보좌 -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은 여러분의 영원한 투자가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영생과 승영을 준비하는 곳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형제자매님들께 봉사하겠습니다. - 천낙서 제2보좌 -

인터뷰를 마치자 성전 회장단 부부는 점심도 거른 채 서둘러 일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주님의 집에서의 봉사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 간 쌓아 온 행복의 표정이 세월의 흔적보다도 깊게 새겨있었다.

새로운 공보 선교사, 마우어 장로 부부



높은 망루에 올랐던 베냐민 왕도, 담대히 사람들 앞에 섰던 앰올레크도 그리고 이 지상에 주님의 복음을 회복시킨 조셉 스미스도 다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복음은 참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여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외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부부가 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공보 선교사라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를 넘긴 나이로 태평양을 건넌 부부가 있다. 마우어(Mower) 장로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판즈위스 장로 부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공보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마우어 장로 부부는 사실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남편인 마우어 장로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왔다. 그때가 1963년으로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터라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마우어 장로는 선교사로 봉사하며 ‘홀륭한 성품을 지녔지만 가여운’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뒤 귀환했다. 그러나 마우어 장로의 한국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다. 3년의 복무 기간 동안 마우어 장로는 한국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키우게 됐고 해마다 연차 대회 때면 한국 출신의 귀환 선교사들과 모여 한국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정말로 더 큰 인연은 다른 곳에 있다. 마우어 자매, 귀환 선교사들이 모일 때면 손수 김치를 만들어 대접한다는 마우어 자매가 바로 한국인인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공보 선교사라는 부름을 통해 한국과의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우어 장로가 선교사로 부름 받아 한국에 온지 꼭 44년 만의 일이다.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이야기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마우어 장로 부부는 한국의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고맙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이 땅에 공보에 대한 좋은 씨를 많이 뿌려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두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참된 교회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는 단순하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다. 두 사람의 얼굴에 곱게 자리 잡은 주름처럼 혹은 세월의 깊이를 가진 아름다운 미소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공보 활동을 기대해 본다.

지역단신

- 대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여름 캠프
스테이크 대회
- 서울 스테이크
제1회 서울 패전트 - 12월 25일 청운 와드에서 제1회 서울 패전트 공연이 열린다.
-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서울 북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순천 지방부
우정의 밤 - 지난 10월 28일 지방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을의 소리'라는 이름 하에 우정의 밤을 가졌다.
- 안양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 전주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 지난 9월 24일 전 성전 회장이었던 이도환 형제 부부와 함께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 제주 지방부
지방부 대회
- 한국 문화의 밤
2006년 9월 29일 유타 주 바운티폴 지역 센터에서 '한국 문화의 밤' 모임이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리아호나 특별 구독 캠페인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글 잡지 '리아호나'가 특별 구독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및 구독 기간 조정과 함께 연장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모로나이 천사 모양의 서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단이나 잡지 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후 하와이를 다녀와서

송성아 자매(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송성아 자매와 김 밀려 형제의 두 아들.

“알로하(Aloha).”

하와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 인사를 들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최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일이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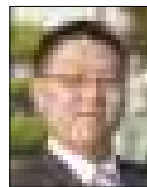
고 하와이로 가게 된 일이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달콤한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찬란한 자연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전세계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2주간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야외 활동을 하며 하와이의 문화와 자연을 직접 체험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와이에서의 또 다른 즐거움은 세계 속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청소년들이었지만 후기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선교 사업을 잘 계획이 있는 사람?”이란 선생님의 질문에 일제히 올라가는 손을 보며, 각국의 청소년들이 전세계로 나아가 주를 증거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 2주간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김 밀려’ 형제님 가족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님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제 질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신 김 형제님은 제게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

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2주간의 여행 동안 저는 얻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통해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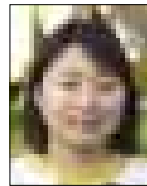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제281기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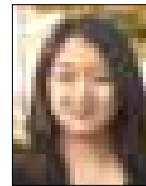
김경섭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부산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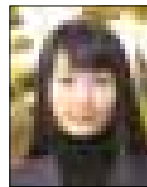
안흥성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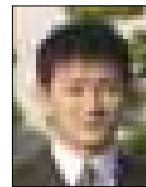
김아영
인천 스테이크
담동 와드
서울 선교부



연수정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부산 선교부



김해숙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대전 선교부



이재원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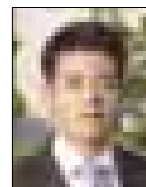
마의진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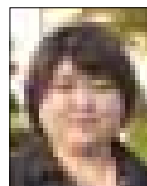
전부경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손선경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부산 선교부



최찬경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안진숙
청주 스테이크
예성 와드
부산 선교부



한경주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동대문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민혜기(전임: 손승주)

제1보좌: 김승겸(전임: 박광식)

제2보좌: 배상기(전임: 김승겸)

인천스테이크

담동 와드와 용현 와드가 통합되어 담동 와드로 명칭 변경

담동 와드 감독: 정웅섭(전임: 정홍교, 정웅섭)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감독: 박지훈(전임: 김연혁)

시흥 와드 감독: 김종인(전임: 김현일)